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이 후 석 (중부고고학연구소)

토론 : 이양수(경주박물관)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와 韓半島

李厚錫(中部考古學研究所)

I. 서론

II. 요령식세형동검과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

1. 요령식세형동검의 제안
2. 지역단위의 설정과 출토유적 현황

III.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과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변천

1.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과 변천

2. 세형동검문화의 변천 단계와 연대

IV.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양상과 한반도 - 요령지역을 중심으로

1. 요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2. 요동남단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3. 요동북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4. 요동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V. 결론

I. 서론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細形銅劍 단계의 동검들과 그 문화를 포괄하여 연구하는 경향들은 최근에 들어와 본격화되고 있다.(이청규 2004) 특히 중국 동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과 그 문화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이후 새로운 자료들이 증가되는 한편, 특별전과 학술심포지움 및 공동조사연구 등을 통해 기존 조사자료에 대한 공개(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6;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와 재평가(大貫靜夫 編 2007; 春成秀爾·西本豊弘 2008)도 이루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彌生時代の 연대 조정문제와 맞물리면서 한국학계와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 한반도의 細形銅劍文化(韓國式銅劍文化) 혹은 粘土帶土器文化의 형성과 변천 과정, 그리고 일본 彌生時代の 연대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던지(박진일 2007; 中村大介 2009; 이형원 2010) 요령지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청동기문화의 전반에 대한 조사현황과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이청규 2008; 吳江原 2009)에서 개괄적인 언급에 머무르고 있어 정작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이나 그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소략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사자료에 대한 접근 및 연구환경의 제약때문이었으나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와는 달리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이나 그 문화가 비파형동검문화의 한 부분으로 다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만큼 그 형식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동반유물군의 성격

이나 조합관계 역시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變形(退化)遼寧式銅劍’(이건무 1991·1992), ‘초기좁은낫단검’(박진욱 1987), ‘初期細形銅劍’(박순발 1993), ‘중간형동검’(이청규 1993), ‘中細形銅劍’(오강원 2002), ‘細形銅劍 初期形’(이청규 2005) 등으로 불려왔던 중국 동북지역, 특히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류를 ‘遼寧式細形銅劍’(이후석 2008)이라 규정하고, 그 형식학적 특징 및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지역별로 변천되는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지역의 세형동검문화(한국식동검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다만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는 바 여기서는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요소를 중심으로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한정하려 한다.

II. 요령식세형동검과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

1. 요령식세형동검의 제안

중국 동북지역이나 한반도지역에서 琵琶形銅劍 혹은 遼寧式銅劍에 이어 등장하는 直刃形 혹은 細身形 동검들에 대해서는 좁은낫단검 혹은 細形銅劍과 韓國式銅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細形銅劍이란 명칭은 일본학계에서 平形銅劍과 대비되는 말(高橋建自 1925; 이청규 1990 재인용)로 현재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韓國式銅劍이란 용어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부류의 동검들과 구별하는 한편 한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검의 형식학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남한학계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에는 대체로 한반도지역에서 琵琶形銅劍에서 細形銅劍으로의 전환과정, 곧 韓國式銅劍의 형성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 동북지역 출토품이 형식학적 조형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즉, 각각의 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들의 형식학적 차이를 지역성보다는 시기 차이로 이해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부 요소의 영향관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 다소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부류의 세형동검류는 대략 기원전 4세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점에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검류는 한반도의 세형동검(혹은 한국식동검)과 일정한 형식학적 차이가 있으나 시기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지역적인 특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韓國式銅劍’과 ‘細形銅劍’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한정시켜 검신 하부 어임(결입부)과 등대 마디(절대)를 특징적인 속성으로 하는 한반도의 전형적인 세형동검은 ‘韓國式細形銅劍’으로 규정하고, 이와 다른 형식학적 특징을 지녔으며 요령지역에서 등장하여 중국 동북지역은 물론 한반도 일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

동검류는 ‘遼寧式細形銅劍’으로 명명하려 한다.(이후석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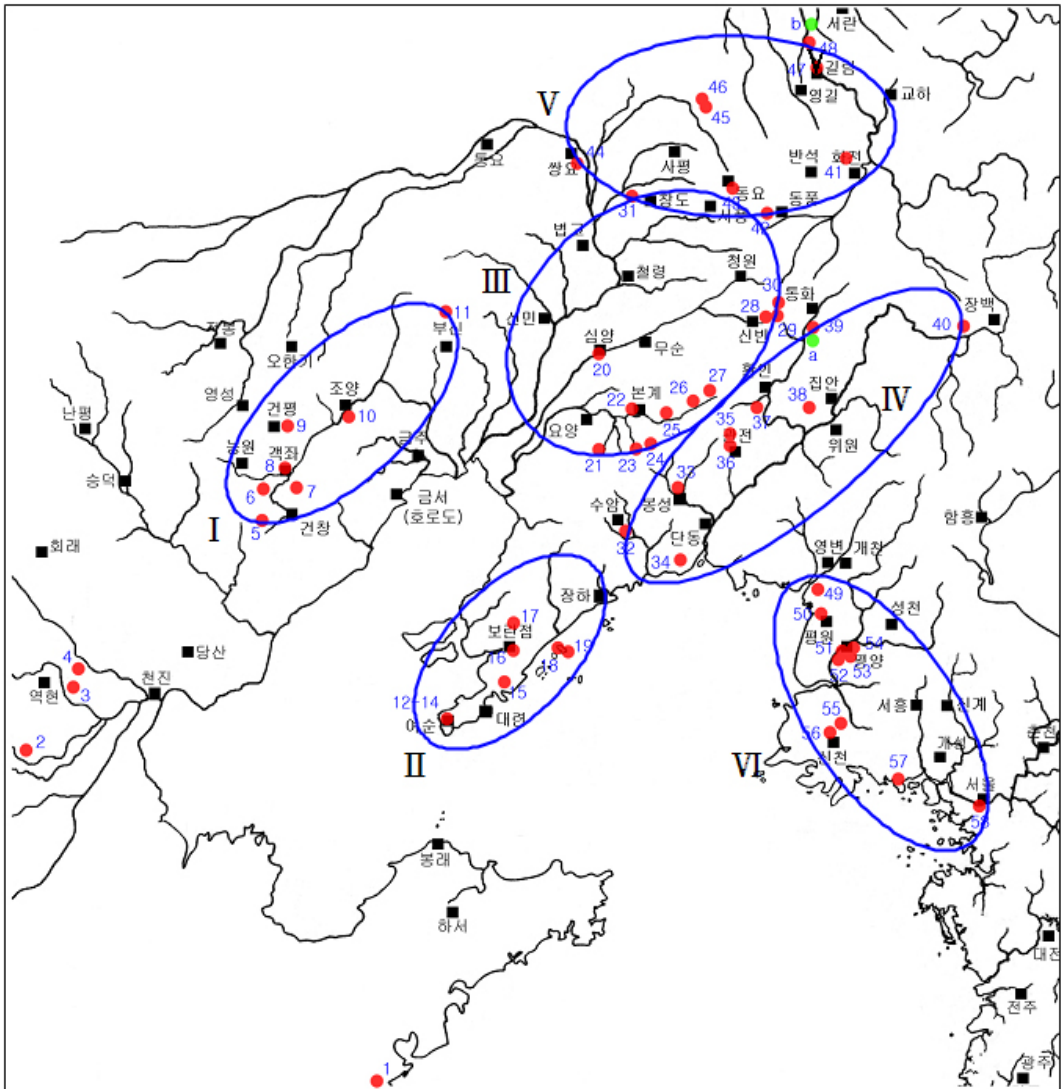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中細形銅劍’은 한반도로부터 전해지는 細形銅劍과는 달리 일본지역 현지에서 직접 제작되어 조금 다른 형식학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의미관계를 따져보면 ‘日本式細形銅劍’으로 부를 수도 있어 ‘遼寧式’ 혹은 ‘韓國式’에 대비되는 세형동검류의 실체가 인정된다. 또한 길림지역에도 세형동검의 범주안에 포괄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吉林式細形銅劍’으로 부를 수도 있겠으나 발견 수량이나 보고 자료 부족으로 현재로는 그 실체만이 인정될 뿐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이러한 특이형식의 세형동검은 비파형동검의 엽돌 흔적이 잔존하는 점을 제외하면 직인형 동검으로 볼 수도 있다. 觸角式銅劍의 형태로만 확인되고 있어 遼寧式細形銅劍과는 성립계기나 문화기반에서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¹⁾

遼寧式細形銅劍은 검신 하부에 결입부가 없고 등날 형태가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에서는 韓國式細形銅劍과 구별되고, 등대의 척돌과 검엽의 엽돌이 사라지고 칼허리 만곡부(葉凹部)가 소멸되어 있는 점에서는 琵琶形銅劍과도 구별된다.

2. 지역단위의 설정과 출토유적 현황

遼寧式細形銅劍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 유적들은 자연지리적인 지형과 수계를 바탕으로 기왕의 연구성과(姜仁旭 1996; 吳江原 2002; 이후석 2008)를 고려하여 몇 개의 지역단위를 설정하여 살펴볼 수 있다. 大凌河中上流의 객좌-조양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요서지역(I), 千山山脈以南의 대련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요동남단지역(II), 下遼河東岸~千山山脈以西의 심양-본계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요동북부지역(III), 千山山脈以東~鴨綠江上流以西의 단동-통화지구를 중심으로 길림남단지역을 포괄하는 요동동부지역(IV), 東遼河-輝發河-松花江 사이의 길림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길림중서부지역(V) 등의 5개 권역으로 구별되며 여기에 淸川江中下流~漢江中下流 사이의 평양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한지역(VI)을 고려하면 모두 6개 권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通化 金廠鎮 출토 觸角式銅劍과 舒蘭 四家村 출토 長杆式銅劍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계통적인 측면에서 蛟河 興農村 洋梨地 출토품이나 阿城 大嶺鄉 上雷木屯 출토품과 같은 초기 觸角式銅劍으로 연결된다.



[도면 1]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 현황(별표 1~7의 순번과 일치)

[출 전]

I' : 하북지역 및 산둥지역

- 1: 왕칭, 2006, 「산둥출토 동북계통 청동단검과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東北亞歷史論叢』13, 동북 아역사재단; 王青, 2007, 「山東發現的東北系青銅短劍及相關問題」『考古』07-8.
- 2-4: 鄭紹宗, 1975, 「河北省發現的青銅短劍」『考古』75-4.

I : 요서지역

- 5: 王振來, 1996, 「戟」『葫蘆島文物』, 156쪽; 王成生, 2003, 「遼寧出土銅戈及相關問題的研究」『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218~219쪽 및 233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管所, 2006, 「遼寧建昌于道溝戰國墓地調查發掘簡報」『遼寧省博物館館刊』1, 遼海出版社.
- 6: 遼寧省文物踏查訓練班, 1980, 「1979年朝陽地區文物普查發掘的主要收穫」『遼寧文物』80-1;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考古學報』82-4.
- 7: 劉大志·柴貴民, 1993, 「喀左老爺廟鄉青銅短劍墓」『遼海文物學刊』93-2.
- 8: 傅宗德·陳莉, 1988, 「遼寧喀左縣出土戰國器物」『考古』88-7.
- 9: 建平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 1983, 「遼寧建平縣的青銅時代墓葬及相關遺物」『考古』83-8, 687쪽.
- 10: 王成生, 1985, 「遼河流域及隣近地區短鋌曲刃劍研究」『遼寧省博物館學術論文集』, 218쪽 및 220쪽
圖1; 王成生, 2003, 「東北亞地區短鋌曲刃青銅短劍的年代與族屬」『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196쪽 圖2.
- 11: 趙振生·紀蘭, 1994, 「遼寧阜新近年來出土一批青銅短劍及短劍加重器」『考古』94-11, 1048쪽 圖1.

II : 요동남단지역

- 12-14: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윤가촌」『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社會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尹家村」『雙甌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 科學出版社. / 原田淑人·駒井和愛,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東亞考古學會 編, 1931, 47쪽 및 插圖26; 後藤直, 2007, 「牧羊城周邊發見의銅劍·銅斧」『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考古學研究室, 268쪽 圖1. / 14: 許明綱, 1993, 「大連市近年來發現青銅短劍及相關的新資料」『遼海文物學刊』93-1, 9~10쪽.
- 15-16: 許明綱, 1993, 「大連市近年來發現青銅短劍及相關的新資料」『遼海文物學刊』93-1, 9~10쪽.
- 17: 許明綱·于臨祥, 1980, 「旅大市新金縣後元臺發現銅器」『考古』80-5.
- 18: 旅順博物館, 1982, 「遼寧長海縣上馬石青銅時代墓葬」『考古』82-6, 591~595쪽.
- 19: 許明綱, 1993, 「大連市近年來發現青銅短劍及相關的新資料」『遼海文物學刊』93-1, 11쪽.

III : 요동북부지역

- 20: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정가와자」『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출판사;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89, 「瀋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考古』89-10, 888~891쪽.
- 21: 孫守道·徐秉現, 1964, 「遼寧寺兒堡等地青銅短劍與大伙房石棺墓」『考古』64-6, 278~281쪽.
- 22: 梁志龍, 2003, 「遼寧本溪多年發現的石棺墓及其遺物」『北方文物』03-1, 圖3-13 및 11쪽.
- 23: 齊俊, 1994, 「本溪地區發現青銅短劍墓」『遼海文物學刊』94-2; 梁志龍, 2003, 「遼寧本溪多年發現的石棺墓及其遺物」『北方文物』03-1, 11쪽 圖5-10 및 12쪽.
- 24: 梁志龍·魏海波, 2005, 「遼寧本溪縣朴堡發現青銅短劍墓」『考古』05-10.
- 25: 魏海波, 1984, 「遼寧本溪發現青銅短劍墓」『考古』84-2.
- 26: 梁志龍, 1992, 「遼寧本溪劉家哨發現青銅短劍墓」『考古』92-4.
- 27: 魏海波·梁志龍, 1998, 「遼寧本溪縣上堡青銅短劍墓」『文物』98-6.
- 28-30: 撫順市博物館考古隊, 1983, 「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文物』83-9, 圖9 및 64쪽.
- 31: 裴耀軍, 1989, 「遼寧昌圖縣發現戰國·漢代青銅器及鐵器」『考古』89-4; 李矛利, 1993, 「昌圖發現青銅短劍墓」『遼海文物學刊』93-1.

IV : 요동동부지역

- 32: '遼河文明展'(遼寧省博物館, 2006) 전시품.
- 33-35: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考古』84-8, 712~714쪽.
- 36: 成璟瑋·孫建軍, 2009 「于道溝遺蹟 出土 青銅武器에 대하여」『考古學探究』5, 考古學探究會, 104쪽.
- 37: 曾昭藏·齊俊, 1981, 「桓仁大甸子發現青銅短劍墓」『遼寧文物』81-2;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博物館研究』94-2.

- 38: 集安縣文物管理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考古』81-5; 張雪岩, 1993, 「集安青銅短劍墓及相關問題」『高句麗研究文集』.
- 39: 國家文物局 主編, 2000, 「吉林通化萬發拔子遺址」『1999 中國重要考古發現』, 國家文物局.
- 40: 宮本一夫, 2002, 「吉長地區における青銅武器の變遷と地域的特徴」『東北アジアにおける先史文化の比較考古學的研究』, 2002, 55~58쪽; 朱永剛, 2004, 「吉林省及相關地區出土銅劍的聚關分析 - 兼論東北系銅劍的區系與流變」『邊疆考古研究』1, 科學出版社, 94쪽.

V : 길림중서부지역

- 41: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東北考古與歷史』1, 文物出版社.
- 42: 洪 峰, 1987, 「吉林東豐縣南部古遺蹟調查」『考古』87-6, 521~522쪽; 王俠·劉景文, 1988, 「東豐縣大架山青銅時代及漢代遺址」『1987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129~130쪽.
- 43: 劉升雁, 1983, 「東遼縣石驛公社古代墓群出土文物」『博物館研究』83-3.
- 44: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1974, 「吉林懷德大青山發現青銅短劍」『考古』74-4.
- 45-46: 金旭東, 1992, 「東遼河流域的若干種古文化遺存」『考古』92-4, 352~354쪽;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2000, 『吉林省志 卷四十三 文物志』, 26~27쪽 및 257~258쪽.
- 47: 董學增, 1996, 「吉林市長蛇山出土一件青銅短劍」『考古』96-2.
- 48: 陳家塊, 1984, 「吉林永吉縣烏拉街出土“觸角式劍柄”銅劍」『考古』84-4.

VI : 서북한지역

- 49: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2, 259쪽 도635.
- 50: 송순탁, 1997, 「새로 알려진 고대시기유물」『조선고고연구』97-3, 41~43쪽;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특별전도록), 56~57쪽.
- 51: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1925, 「大同江面石巖里發見の銅劍と鏡」『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Ⅱ -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103~107쪽 및 圖版 54-56.
- 52-53: 리규태, 1983, 「평양부근과 황해남북도에서 알려진 좁은놋단검관계유물」『고고학자료집』6, 188쪽.
- 54: 윤광수, 1994, 「토성동 486호 나뭇잎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94-4; 小田富士雄, 1997, 「『一鑄式銅劍』覺書」『研究紀要』1, 下關市立考古博物館, 圖版Ⅱ.
- 55: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과형단검과 좁은놋단검관계 유적·유물」『고고학자료집』4, 159~161쪽;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 1989, 「고산리 움무덤」『조선유적유물도감』2, 79쪽 도판146; 宮里修, 2009, 「韓半島 劍把頭飾의 分類와 編年」『嶺南考古學報』50, 嶺南考古學會, 27쪽 그림7-5 일부수정.
- 56: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과형단검과 좁은놋단검관계 유적·유물」『고고학자료집』4, 161쪽.
- 57: 리규태, 1983, 「평양부근과 황해남북도에서 알려진 좁은놋단검관계유물」『고고학자료집』6, 185~186쪽.
- 58: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1, 養德社, 53~54쪽 및 圖版 27-130-131; 岡内三眞, 1982, 「朝鮮における銅劍の始原と終焉」『小林行雄博士古稀記念考古學論考』, 平凡社, 797쪽 表 2.
- a: 王志敏, 2008, 「通和市金廠鎮出土戰國晚期至秦漢時期青銅短劍」『北方文物』08-3.
- b: 董學增, 1987, 「吉林舒蘭發現一件青銅劍」『考古』87-4.

Ⅲ.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과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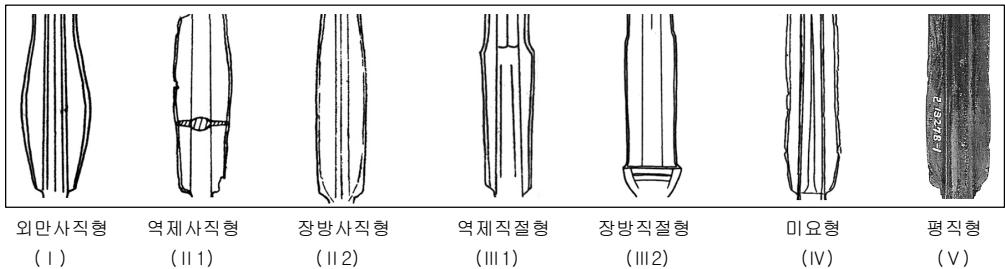
1.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과 변천

1) 주요속성

遼寧式細形銅劍에 대한 기존의 형식학적 연구에서는 검신 형태만을 고려하고 등날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였다. 또한 검신의 형태에 주목하더라도 구조품이라는 특성상 제작자나 사용자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사용과정에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재가공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별도의 검토없이 일률적인 분석방식을 적용하여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는 예도 없지 않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요령식세형동검의 검신 하부 형태뿐만 아니라 등날 형태에 주목하여 주요속성으로 채택했다. 이 두가지 속성은 각각 鑄型屬性和 研磨屬性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趙鎮先 2004) 두 속성간의 결합관계는 제작전통이나 제작기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형에서 심하게 변형된 재가공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잔존 형태만을 고려하여 형식분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橋口達也 1992) 이외에 참고되는 속성으로 검봉길이와 검신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봉부의 상대길이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세부형식 설정이나 형식간의 선후관계 추정시에 참고할 수 있다.²⁾

검신(검엽) 하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주형에 새겨진 제품의 형태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검엽 하부의 평면형태, 그리고 검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위 형태라는 별도의 속성조합으로 분리하여 볼 수도 있어 등날의 형태보다 다양한 속성이 추출될 수 있다.³⁾ 그러나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고, 조합되는 형식들도 한정되고 있어 번잡한 분류를 피하고자 일단 하나의 속성으로 간주한다.



[도면 2] 요령식세형동검 검신(검엽) 하부의 형태

- 2) 遼寧式細形銅劍 검신 봉부의 길이는 신부길이에서 봉부길이가 차지하는 상대비율로 나타내어진다. 봉부 대 검신 길이의 비가 1/5이하인 短鋒形, 1/5이상인 中鋒形, 1/4이상인 長鋒形, 1/3이상인 超長鋒形으로 각기 설정될 수 있다. 재가공품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장봉형이나 초장봉형을 이루며, 대체로 지역에 상관없이 '장봉형→초장봉형'의 변화 양상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韓國式細形銅劍의 경우 봉부의 상대길이는 대략 1/5을 기준으로 단봉형(특히 10~16%)과 장봉형(특히 20~30%)으로 구별해서 보기도 하는데(趙鎮先 2004) 시기에 따른 일정한 변화 양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3) 검엽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위 형태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불룩한', '턱이진', '밋밋한' 등의 표현으로 설정된 속성과 관련된다.(박진욱 1987;李清圭 1993; 朴淳發 1993) '불룩한', '턱이진', '밋밋한' 등의 의미에는 검엽 하부의 평면형태라는 속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검신 상부와 하부의 검엽 폭이 각기 달리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한 것이었다. 따라서 검신 하부 형태라는 속성은 검엽 하부의 평면형태와 검엽 하부와 상부의 연결상태라는 속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I형 : 외만사직형 혹은 외만장방형.

II형 : 역제사직형(II1)과 장방사직형(II2)으로 세분 가능.(기존의 ‘블록한’부류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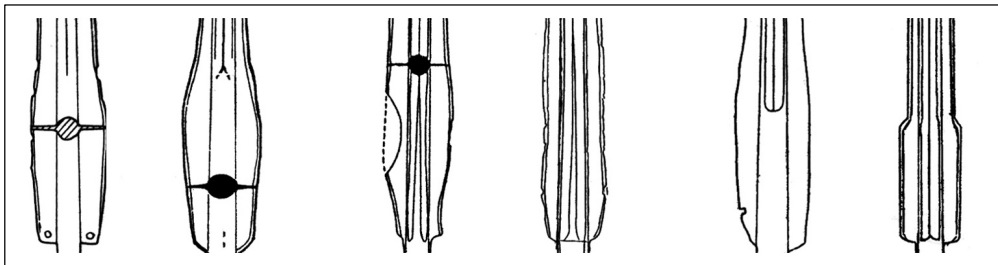
III형 : 역제직절형(III1)과 장방직절형(III2)으로 세분 가능.(기존의 ‘턱이진’부류와 관련)

IV형 : 미요형.(검엽 하단의 미약한 어임이 특징으로 기존의 ‘밋밋한’부류와 관련)

V형 : 평직형.(완전한 직인형 검신).

곡인형동검에서 직인형동검으로의 일반적인 검신 변천 방향을 고려하여 볼 때 검엽 하부 형태는 ‘외만사직형(I)→역제사직형(II1)→장방사직형(II2)/역제직절형(III1)→장방직절형(III2)’으로 변화하여 대체로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속성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엽 하부 형태가 직인형에 가까운 微凹形(IV)은 완전한 직인형을 이루는 平直形(V)으로의 변천 역시 상정된다. 요령식세형동검 검신 하부 형태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은 한국식세형동검의 검신 형태 변화양상과도 흡사하다.

등날의 형태는 등대 연마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연마속성에 해당된다. 등날의 형태는 보통 마디로 표현되나 韓國式細形銅劍에서와는 달리 遼寧式細形銅劍에는 마디를 이루지 않는 형태를 비롯하여 재가공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등날이 나타나고 있다. 竹節形 마디의 경우 등날의 길이(혹은 등대 마디의 위치)라는 속성을 적용하여 더 세분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⁴⁾ 여기서는 전반적인 양상 파악에 그치고자 한다.



단순형(a)

연미형(b)

죽절형(c)

[도면 3] 요령식세형동검 등날(마디)의 형태

단순형 등날(a) : 一字形(‘|’) 혹은 三字形(‘|||’), 꺾쇠형(‘^’) 등의 형태.

연미형 마디(b) : 제비꼬리모양[燕尾形]의 세장한 폐쇄형 등날 형태.

죽절형 마디(c) : 대나무 마디처럼 짧은 폐쇄형 등날 형태.

한편 등날의 형태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시간적인 변화와 함께 지역적인 특성을 한층 더 반영하고 있는 속성으로 여겨진다. 단순형 등날 형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요서지역과 길림중서지역에는 시종일관 채택되고 있다.

4) 필자는 舊 高(이후석 2008)에서 죽절형 마디의 위치라는 속성을 등날의 형태와 관련하여 형식분류를 위한 주요속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죽절형 마디는 검신 하부에 형성된 것(c1)과 기부까지 내려온 것(c2)의 두가지로 세분할 수 있겠는데 요령식세형동검과 한국식세형동검 모두 c1이 古式, c2가 新式에 해당되어 세부형식 설정이나 변천 흐름 파악시에 참조할 수 있다.

燕尾形 마디는 요동북부지역과 요동남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竹節形 마디는 千山山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요동북부지역과 요동동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미형과 죽절형 마디가 확인되는 동검들은 千山山脈 일대를 점이지대로 하여 각기 그 서변과 동변에 주로 분포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죽절형 마디의 경우 요령식세형 동검과 한국식세형동검에서 모두 확인되며, 분포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 형식분류

앞에서 검토한 주요속성 가운데 검신(검엽) 하부의 형태와 등날(마디) 형태와의 조합관계를 통해 요령식세형동검의 여러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대체로 鑄型屬性과 研磨屬性간의 결합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합관계는 다음 표와 같이 명목상 17가지 형식으로 설정 가능하나 현재까지 12가지 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즉,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은 이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과목수영자식(I a), 양갑산식(I b), 대청산식(II 1a), 조가보자식(II 1c), 길상둔식(II 2a), 오현리식(III 1a), 마가자식(III 1c), 왕둔식(III 2a), 상보촌식(III 2c), 고비점식(IV a), 윤가촌식(IV b), 신송리식(V a) 등 모두 12가지 형식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표 1] 요령식세형동검 검신 하부 형태와 등날 형태의 조합관계

검신하부 형태		등날 형태	단순형 (a)	연미형 (b)	죽절형 (c)
외만사직형(I)			●	●	
역제·장방 사직형(II)	역제사직형(II 1)		●		●
	장방사직형(II 2)		●		?
역제·장방 직절형(III)	역제직절형(III 1)		●		●
	장방직절형(III 2)		●		●
미요형(IV)			●	●	
평직형(V)			●		

果木樹營子式(I a) : 과목수영자식(도면4-1)은 외만사직형의 검신 하부 형태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으로, 略左 果木樹營子 土壙墓 출토품이 표지이다. 검신 상부는 직선이며, 비파형동검의 검엽 엽돌과 등대 척돌은 주형에서 이미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검병 역시 순수 銅製나 木製가 아닌 銅木 혼합의 새로운 검병 양식(이하 과목수영자식 검병)이 채용되고 있다.

亮甲山式(I b) : 양갑산식(도면4-2)은 외만사직형의 검신 하부 형태에 연미형 마디가 조합된 형식으로, 遼陽 亮甲山 土壙墓(M3) 출토품이 표지이다. 과목수영자식의 곡선적인 검신하부 형태에서 검엽 곡률과 폭이 다소 줄고 기부까지 연마되는 과정에서 燕尾形 마디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엽 폭과 함께 검봉 길이가 다소

축소되어 주형 개량보다 연마기법에서 변화가 현저하며 재가공품도 확인되고 있다.

大青山式(Ⅱ1a) : 대청산식(도면 4-3)은 역제사직형 검신 하부 형태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이다. 公主嶺 大青山 土壙墓 출토품과 華甸 西荒山屯 大石蓋墓(M1, M6) 출토품으로 대표되며, 建昌 孤山子 于道溝 土壙墓(90M1) 출토품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과목수영자식의 검신하부 형태가 직선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설계제도시에 주형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趙家堡子式(Ⅱ1c) : 조가보자식(도면 4-4)은 역제사직형 검신 하부 형태에 죽절형 마디가 조합된 형식이다. 장방사직형 검신 하부 형태에 죽절형 마디가 조합된 형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명확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寬甸 趙家堡子 積石石棺墓 출토품과 本溪 劉家哨 石棺墓 출토품 3점 가운데 2점(②,③) 등이 이에 해당된다.

吉祥屯式(Ⅱ2a) : 길상둔식(도면 4-5)은 장방사직형 검신 하부 형태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으로 雙遼 吉祥屯 유적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本溪 梁家村 石棺墓(M2) 출토품도 가능성이 있다.

오현리식(Ⅲ1a) : 오현리식(도면 4-6)은 역제직절형 검신 하부 형태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이다. 연안 오현리 土壙墓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날이 검신상단에만 보이거나 마디와 유사한 부정연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도 있어 일부는 마가자식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馬架子式(Ⅲ1c) : 마가자식(도면 4-7)은 역제직절형 검신 하부 형태에 죽절형 마디가 조합된 형식이다. 新賓 馬架子 石棺墓 출토품과 東溝 大房身 유적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汪屯式(Ⅲ2a) : 왕둔식(도면 4-8)은 장방직절형 검신 하부 형태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이다. 永吉 汪屯 土壙墓 출토품과 평양 토성동 木槨墓(M486) 출토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개 觸角式銅劍의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上堡村式(Ⅲ2c) : 상보촌식(도면 4-9)은 장방직절형 검신 하부 형태에 죽절형 마디가 조합된 형식이다. 本溪 上堡村 石槨墓(M1) 출토품 2점 가운데 1점(②)이 표지이며, 本溪 朴堡村 石棺墓 출토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觸角式銅劍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 일부 확인된다.

高碑店式(Ⅳa) : 고비점식(도면 4-10)은 미요형 검신 하부 형태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이다. 新城 高碑店 M7110 출토품 등 하북지역 戰國燕墓 출토품들 가운데 일부 확인되며, 喀左 北山根 石槨墓(혹은 園林處墓) 출토품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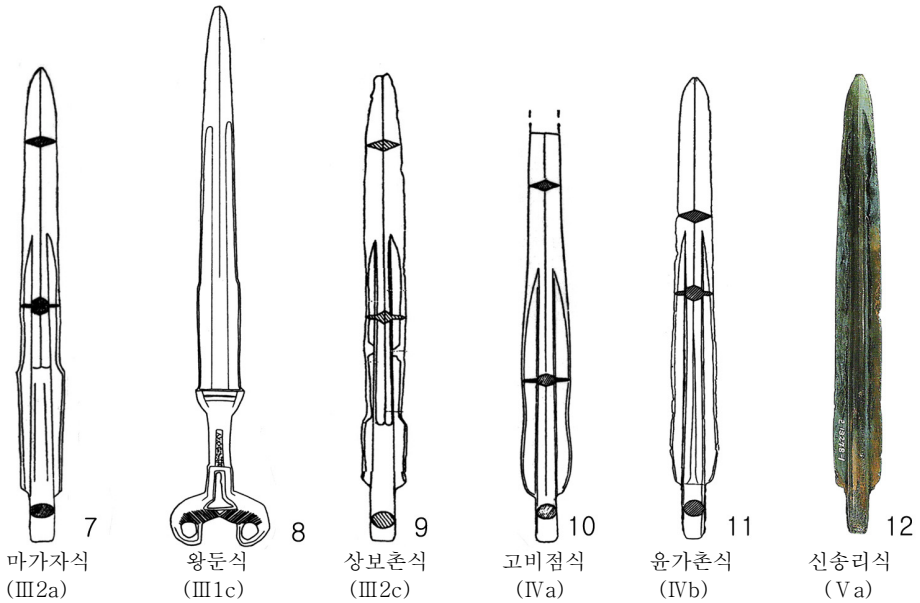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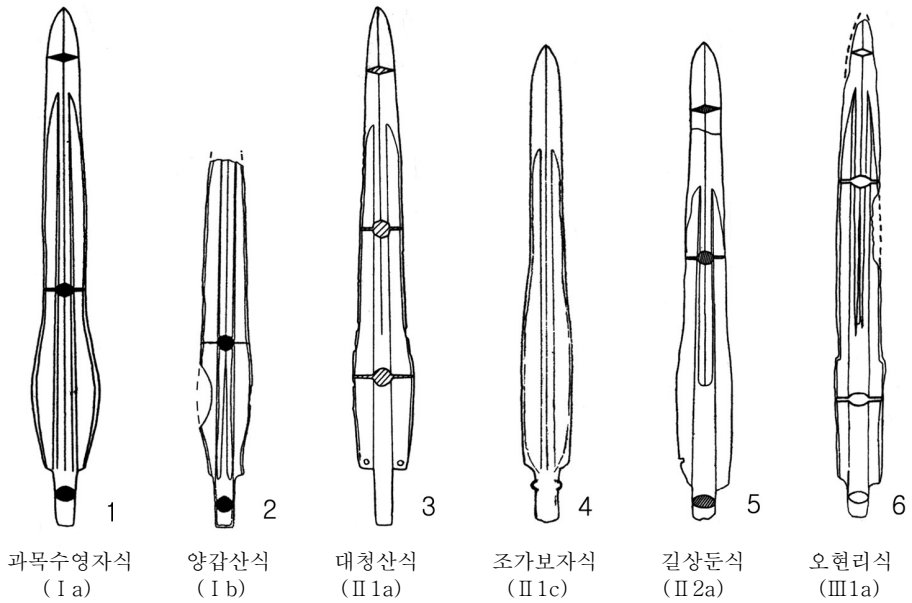
尹家村式(Ⅳb) : 윤가촌식(도면 4-11)은 미요형 검신 하부 형태에 연미형 마디가 조합된 형식이다. 旅順 尹家村 積石木棺墓(M12) 출토품이 표지이다. 旅順 尹家村河北岸 출토품은 미요형의 검신과 등대가 通磨되어 있는 재가공품으로 연미형 마디가 재가공 과정에서 단순형 등날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신송리식(Va) : 신송리식(도면 4-12)은 완전한 직인형 동검으로 등대에 단순형

등날이 조합된 형식이다. 평원 신송리 土壙墓 출토품과 평양 석암리 유적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다른 형식들에 비해 대개 크기나 봉부의 상대길이가 작아 퇴화 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같이 요령식세형동검은 12가지 형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12형식 가운데 중간적인 속성을 나타낸다던지 보고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형식 분류가 곤란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형식들을 다시 하나의 형식군으로 묶어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이를테면 대청산-길상둔식, 오현리-왕둔식, 마가자-상보촌식 등과 같이 밀접한 속성을 나타내는 형식군을 설정할 수 있다.⁵⁾

5)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의 형식분류안을 이청규의 안(이청규 1993:2000)과 대비하여 보면, 필자의 대청산식, 길상둔식은 대개 이청규의 대청산식에, 필자의 마가자식, 오현리식, 상보촌식, 왕둔식은 이청규의 오도령구문식에 각각 해당된다. 또한 필자의 고비점식, 윤가촌식, 신송리식은 이청규의 윤가촌식(일부 고산리식)에 해당된다. 양갑산식과 조가보자식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형식설정에서 일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다.



[도면 4] 요령식세형동검의 여러 형식(촉척부동)

(1. 객좌 과목수영자, 2. 요양 양갑산 M3, 3. 회덕(공주령) 대청산, 4. 관전 조가보자, 5. 쌍요 길상둔, 6. 연안 오현리, 7. 동구(동향) 대방신, 8. 영길 오랍가 왕둔, 9. 본계 상보촌 M1②, 10. 탁현 M659, 11. 여순 윤가촌 M12, 12. 평원 신송리)

3) 형식변천

遼寧式細形銅劍은 검신(검엽) 하부 형태와 등날 형태 간의 조합관계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고 각 속성간의 계승·발전 관계에 따라 일정한 계통성을 띠며 변천된다. 검신 하부 형태에는 鑄型屬性이, 등날 형태에는 研磨屬性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변천 과정은 제작기법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검신 속성간의 계승·발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검신(검엽) 하부 형태와 등날 형태 자체의 변천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곡인형 검신 형태에서 직인형 검신 형태로의 변화하는 동검의 형식학적 발달과정에 의거하여 볼 때 일단 검신 하부 형태는 ‘외만사직형(I)→역제사직형(II1)→장방사직형(II2)/역제직절형(III1)→장방직절형(III2)’의 변천과정이 상정된다. 이 중에서 장방사직형과 역제직절형의 변천과정은 계기적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왕의 연구성과(박진욱 1987; 이청규 1993·2000; 오강원 2002)와 역제직절형 동검들이 장방사직형 동검들이 비해 봉부의 길이를 포함한 검신의 길이가 다소 신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장방사직형에서 역제직절형으로 변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과목수영자식→대청산-길상둔식→오현리-왕둔식’과 ‘조가보자식→마가자-상보촌식’의 형식변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직인형에 가까운 미요형(IV형)에서 완전한 직인형을 이루는 평직형(V형)으로의 변천 과정 역시 상정되고 있어 ‘고비점식/윤가촌식→신송리식’의 형식변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주형속성에서 ‘외만사직형(I형)/장방사직형(II2형)→미요형(IV형)’의 변천과정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양자간의 형태변화 폭이 커서 변천과정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요형 동검은 외만사직형 동검이나 장방사직형 동검에서 계기적인 변천과정을 거쳐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敖漢旗 烏拉寶拉格 土壙墓(94M1) 출토품과 같은 퇴화비파형동검의 급속한 직인화 과정에서 출현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직인화 과정에는 中原系銅劍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⁶⁾

다음으로 등날 형태를 살펴보면 단순형 등날보다 연미형이나 죽절형 마디와 결합하는 동검의 검엽 폭과 곡률이 한층 줄어들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마디를 이루지 않은 단순형 등날 형태가 비파형동검 단계부터 있어 왔던 것에 비해 마디가 형성되어 정형화된 등날 형태는 세형동검 등장 이후 새로이 출현하는 점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어 단순형 등날 형태에서 연미형 혹은 죽절형 마디로 변천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직접적인 계승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연미형 마디에 이어 죽절형 마디가 등장하는 점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등날 형태의 변천에 따른 형식변천 양상은 지역별로 한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요서지역과 요동남단지역 및 길림중서부지역에는 특정한 등날 형

6) 하북지역의 戰國燕墓 출토품은 일종의 전리품일 가능성이 높아 원래 제작지역이나 사용지역 역시 요령지역, 특히 요서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둥지역에도 遼寧式細形銅劍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東北系銅劍’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汪靑 2006) 거의 직인형에 가까운 동검들이 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은 중원계동검의 영향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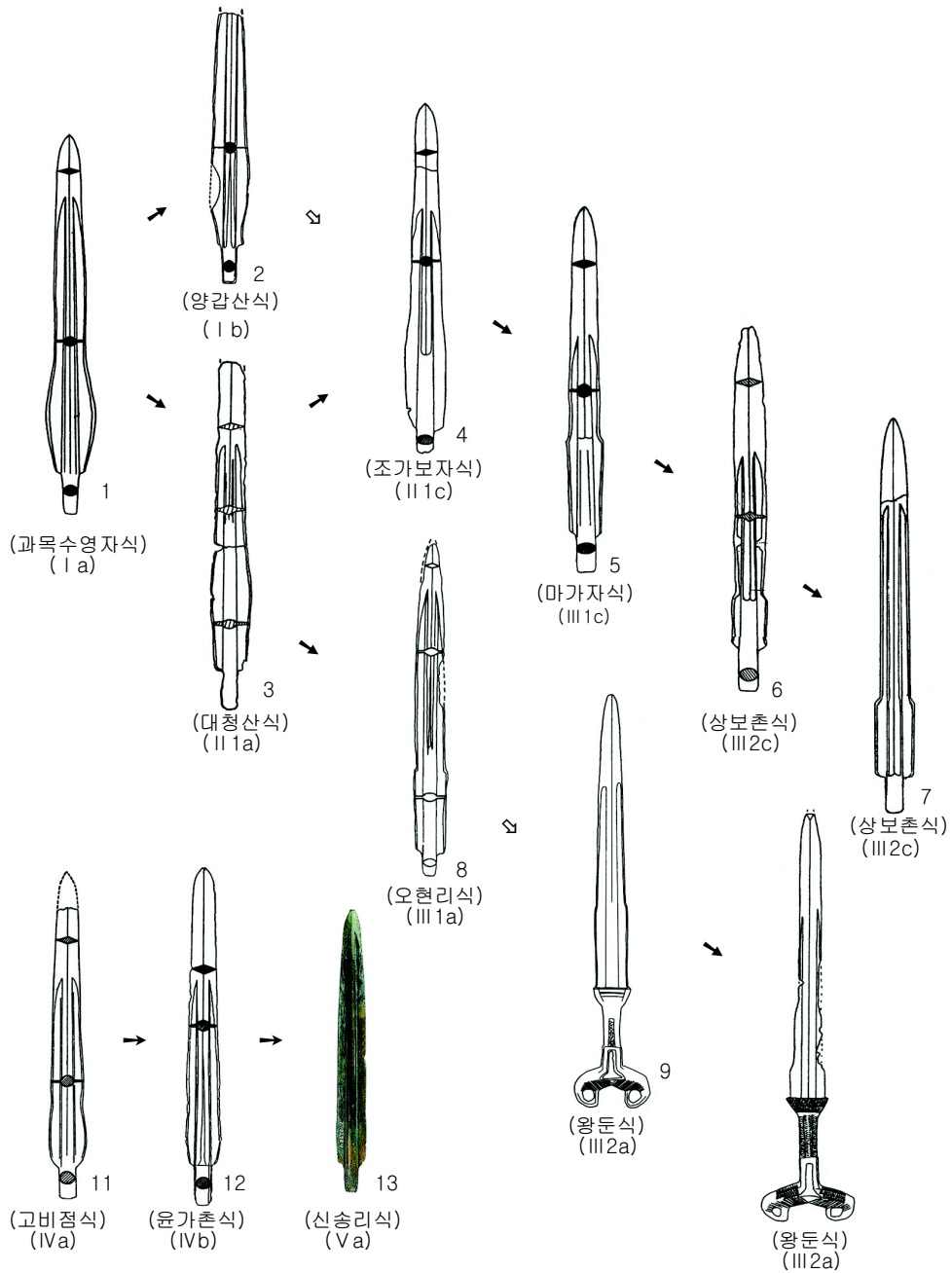
태만이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시기정보보다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서지역과 길림중서지역에는 단순형 등날 형태를 지니는 형식만이 분포하고 있고, 요동남단지역에는 거의 예외없이 연미형 마디 형태를 이루는 것만 확인되고 있어 지역성이 가장 현저하다. 이에 비해 요동북부지역과 요동동부지역, 특히 천산산맥 일대에는 검신 하부 형태뿐만 아니라 등날 형태 역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단순형등날(a)→연미형마디(b)→죽절형마디(c)’의 변천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령식세형동검은 검신 하부 형태와 등날 형태의 변천을 통하여 일정한 계통성과 지역성을 띠며 변천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과목수영자식(Ⅰa식)에서 연마기법 변화로 인하여 양갑산식(Ⅰb식)이, 주형이 개량되어 대청산식(Ⅱ1a식)이 각기 등장하였으며, 다음으로 요서지역에서는 퇴화비과형동검 혹은 과목수영자식 등이 급격하게 직인화되어 고비점식(Ⅳa식)이 출현한다. 요동남단지역을 제외한 요동지역에서는 연마기법의 변화로 ‘대청산식(Ⅱ1a식)→조가보자식(Ⅱ1c식)’의 변천이, 주형의 개량으로 ‘조가보자식(Ⅱ1c식)→마가자식(Ⅲ1c식)→상보촌식(Ⅲ2c식)’의 변천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한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하나 요동남단지역에서는 ‘고비점식(Ⅳa식)→윤가촌식(Ⅳb식)’의 변천이, 길림중서부지역에서는 ‘대청산식(Ⅱ1a식)→오현리-왕둔식(Ⅲ1a식,Ⅲ2a식)’의 변천이 상정된다.

[표 2]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변천 모식

요서지역: 과목수영자식, 대청산-길상둔식, 고비점식 요동북부지역: 양갑산식, 대청산-길상둔식, 조가보자식 마가자-상보촌식 요동동부지역: 조가보자식, 마가자-상보촌식 길림중서부지역: 대청산-길상둔식, 오현리-왕둔식		하북지역 : 고비점식 요동남단지역 : 윤가촌식	비고
과목수영자식		비과형동검? [중원계동검]	초출형식
연마기법 변화	주형 개량		
양갑산식	대청산-길상둔식		1차 파생형식
	주로 연마 변화	주로 주형 개량	
[한국식세형동검?]	조가보자식	오현리-왕둔식	2차 파생형식
	마가자-상보촌식		최종형식

[→ : 직접 관계, --→ : 간접 관계, ?: 간접 관계 혹은 관계불명]



[도면 5]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변천(축척부등)

(1. 객좌 과목수영자, 2. 요양 양감산 M3, 3. 본계 유가초①, 4. 관전 조가보자, 5. 동구 대방신, 6. 본계 상보촌 M1②, 7. 창도 적가촌, 8. 연안 오현리, 9. 영길 왕둔, 10. 평양 토성동 M486, 11. 탁현 M659, 12. 여순 윤가촌 M12, 13. 평원 신송리) [→: 직접관계, ⇨: 간접관계 및 불명]

2.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변천 단계와 연대

1) 단계설정

遼寧式細形銅劍은 새로운 형식의 출현과 주분포권의 변화 및 공반유물군의 성격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공반유물의 조합관계뿐만 아니라 요령식세형동검의 형식변천이 제작기법의 변화 혹은 기능 향상 과정을 반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변천과의 관계속에 변천 단계를 설정하여 본다.

[표 3] 요령식세형동검의 제형식과 변천 단계

형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목수영자식(I a식)		●			
대청산-길상둔식(II 1a식, II 2a식)		●	●	●	
양갑산식(I b식)			●	●	
조가보자식(II 1c식)			●	●	
마가자-상보촌식(III 1c1식, III 2c식)				●	●
오현리-왕둔식(III 1a식, III 2a식)				●	●
고비점식(IV a식)			●		
윤가촌식(IV b식)			●	●	
신송리식(V a식)				●	(●)

[표 4] 요령식세형동검 변천 단계와 주요 공반유물 조합관계

유물 단계(기)	토기류			청동의구		청동무기				동전		철기
	무문 토기	무문 회도	타날 회도	동경	동탁 동령	동검	동과	동모	동촉	명도 반량	반량 오수	
1단계(기)	□	■			■	■	■□	■	■			
2단계(기)	□○	■●	(■)	●○	?	(■)	■○	■○	■○			?
3단계(기)	○	●	●	●○		●○	●○?	●○	●○	●		●
4단계(기)	(○)	●	●	●	●			○	●○		●	●

[■□: 요하이서지역, ●○: 요하이동지역, □○: 비중원계, ■●: 중원계]

요령식세형동검 1단계(과목수영자-우도구단계)

1단계는 요서지역에서 요령식세형동검의 초출형식으로 여겨지는 과목수영자식(I a식)이 출현하고 곧이어 대청산-길상둔식(II 1a식, II 2a식)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객좌 과목수영자 유적과 건창 고산자 우도구 유적이 표지이다. 검신 형태의 일변함과 함께 검병도 동몽혼병의 '과목수영자식검병'이 새로이 사용된다. 동반유물군에도 요령식동과, 장각두형토기 등과 같이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여 이전 단계와는 구별되

고 있다. 요동지역으로 파급되는 양상은 현재로는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우나 새로운 형식의 발생을 표지적인 양상으로 하여 단계를 설정한다.

요령식세형동검 2단계(양갑산-윤가촌단계)

2단계는 각지에서 다양한 검신 형태와 마디 형태를 지닌 여러 형식의 세형동검이 등장하여 유행한다. 요서지역에서 고비점식(IVa식)이 등장하고, 요동지역에도 양갑산식(Ⅰb식)과 윤가촌식(IVb식)이 새로이 등장하여 유행하는 단계이다. 요양 양갑산 유적과 여순 윤가촌 유적이 표지이다. 천산산맥 일대에서 조가보자식(Ⅱ1c식)의 등장은 葉脈文 청동기와 동물형 토제품을 수반하고 있다. 길림지역에는 대청산-길상둔식(Ⅱ1a식, Ⅱ2a식)에 觸角式劍柄이 채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하이동지역에도 전국연계 유물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전국연계 토기류는 豆形土器(특히 長脚形)로 특징되는 無文灰陶가 부장되며, 타날문단경호나 철제이기가 유입되었다고 추정되나 구체적인 부장양상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동일 형식 내에서도 토기류와 금속유물 등의 공반유물 조합관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단계 역시 달리 설정된다.⁷⁾ 또한 戰國系 銅鏡과 明刀錢도 유입된 것으로 여겨지나 본격적인 분묘부장은 다음 단계부터 확인되고 있다.

지역별로 유행하는 다양한 형식 가운데 요하이동지역으로 대청산-길상둔식이 파급되는 점, 양갑산식과 윤가촌식은 전형적인 전국계 금속유물과 공반되지 않는 분묘가 확인되는 점, 그리고 조가보자식은 새로운 양식의 유물(엽맥문청동기, 동물형장식품)을 수반하며 죽절형 마디가 처음 등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동지역에서 상대적인 등장시점은 ‘대청산-길상둔식→양갑산식→윤가촌식→조가보자식’으로 판단된다.

요령식세형동검 3단계(상보촌-서가구단계)

3단계는 요서지역과 요동서부 평원지역이 분포권역에서 탈락되고 요동북부지역과 요동동부지역에서 마가자-상보촌식(Ⅲ1c식, Ⅲ2c식)이, 길림중서부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 오현리-왕둔식(Ⅲ1a식, Ⅲ2a식) 및 Va식(신송리식)이 새로이 등장하여 유행하는 단계이다. 본계 상보촌 유적과 장해 서가구 유적 등이 표지이다.

전국계 銅鏡과 청동무기 및 철제농공구류의 부장과 매납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明刀錢이 추가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공반유물에서 철제무기가 일부 추가되며, 戰國燕系 유물의 비중이 급증한다. 粘土帶土器나 外反口緣壺 등의 재지계 무문토기와 打捺文短頸壺 등의 전국계 灰陶가 공반되나 打捺文灰陶만의 단독부장도 확인되고 있다. 토착집단의 묘제로서 새로이 合口式甕棺墓와 積石墓가 채택되고 있다.

7) 요동지역에서 양갑산식과 대청산-길상둔식은 새로운 형식의 세형동검과 공반되는 경우에는 戰國系 금속유물이 공반되고 있어 전국연계 유물의 공반여부는 사실상 豆形土器 등의 無文灰陶에 한정되는 단계와 여기에 청동무기나 철제농공구가 추가되는 단계로 다시 구별된다. 윤가촌식의 경우에도 전국연계 豆形土器가 공반되는 단계와 打捺文短頸壺가 공반되며 여기에 금속유물이 공반되는 단계로 구별된다.

요령식세형동검 4단계(토성동 M486단계)

4단계는 요동지역마저 분포권역에서 탈락되고, 길림일부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 일부 형식(Ⅲ2a식,Ⅲ2c식,Va식)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검신의 세부형태와 검병의 형태에서 다양한 조합양상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觸角式銅劍 형태의 요령식세형동검과 水鳥文, 葉脈文, 粗粒文 등의 문양요소가 서북한지역의 청동무기나 검부속구에 채용된다. 銅柄鐵劍 단계로 이행되고 있어 사실상 세형동검의 제작은 극히 한정된다.

검신형태는 초장봉형을 이루면서 한층 세장해져 장검화된 형태로 변하거나 異形銅劍 등의 非요령식이 확인되며, 觸角式劍柄은 雙環頭式외에 세부형태가 다양해지면서 長杆式劍柄과 같은 새로운 양식도 등장한다. 前漢鏡과 함께 청동무기는 물론 철제무기가 다수 공반되며, 철제농공구와 철제무기 가운데 일부는 직접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요령식세형동검의 연대

요령식세형동검의 연대에 대해서는 舊 고(이후석 2008)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었는데 전반적인 상대연대의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나 최근의 유적조사 및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일부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5] 요령식세형동검의 사용시기

형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목수영자식(I a식)		■			
대청산-길상둔식(Ⅱ1a식,Ⅱ2a식)			■		
양갑산식(I b식)			■		
조가보자식(Ⅱc식)			■		■
마가자-상보촌식(Ⅲ1c1식,Ⅲ2c식)				■	■
오현리-왕둔식(Ⅲ1a식,Ⅲ2a식)				■	
고비점식(Ⅳa식)			■		■
윤가촌식(Ⅳb식)			■		■
신송리식(V a식)				■	■

요령식세형동검 1기

요령식세형동검 1기의 상한연대는 과목수영자식(I a식)과 대청산식(Ⅱa식)의 연대와 직결된다. 각기 喀左 果木樹營子 유적과 建昌 孤山子 于道溝 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이던 공반된 銅戈와 土器 등을 戰國燕 및 선행하는 凌原 三官甸子 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대를 설정할 수 있다.

果木樹營子 土壙墓에서는 전국초기 양식의 銅戈와 전국중기 양식의 銅鼎, 그리고 銅鐸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사한 형태의 銅戈와 銅鐸이 삼관전자 유적에서 역시 출토된 바 있다. 삼관전자 유적은 공반된 銅鼎은 하남지역의 汲縣 山彪鎮 大墓 출토 銅鼎이나 하북지역의 易縣 解村 M2 혹은 北京 懷柔城北 M56 출토의 陶鼎과 비교되어 전국중기 이전으로 편년되기 어려우나(宮本一夫 1991; 石川岳彦 2001) 공반된 銅戈는 보통 ‘燕侯載戈’와 비교되어 비슷하게 편년되는데 燕 成侯(기원전 358~330년)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王建新 2002) 成公(기원전 449~434년)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石川岳彦 2008)를 수용하면 전국초기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삼관전자 유적은 석곽묘와 토광묘가 함께 확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대 폭이 일정하게 있으리라 생각되며, 과목수영자 유적의 동과가 삼관전자 유적의 동과보다 다소나마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국초기 후반, 즉 대략 기원전 5세기말~기원전 4세기초로 추정하여 본다.

于道溝 土壙墓(90M1)에서는 전국초기 양식의 銅戈와 遼寧式銅戈가 중원계동검(盤首柄劍?), (有莖)三翼有銜銅鏃 등의 무기류와 蓋豆, 陶豆 등의 戰國燕式 陶器와 공반되고 있다. 요령식동과는 于道溝90M1뿐만 아니라 建昌 東大杖子M14, 喀左 梁家營子, 胡蘆島 傘金溝 유적 등 요서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고 최근 寬甸 泡子沿 유적 등 요동동부지역에도 출토 예가 보고되어 있다. 요령식동과의 세부형태를 살펴보면 ‘雙胡戈’와 ‘胡刺戈’로 구별되며, 형식변천은 다소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郭大順 2006; 小林青樹·石川岳彦·宮本一夫·春成秀爾 2007) 전자에서 후자로 변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成璟瑯 2009; 趙鎮先 2009) 胡이 돌기(刺)가 발달된 동과들은 전국중기 이후 연식동과, 특히 108건의 동과가 출토된 燕下都 武陽臺村 23호 作房 遺址나 燕國君銘 동과에서 종종 찾아지고 있어 대략 전국중기 이후로 편년되며, 이에 따라 쌍호과의 출현연대 역시 전국중기 이른 단계 혹은 전국초기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쌍호과는 胡의 곡률이 작아지는 방향, 즉 ‘우도구→산금구→포자연’의 순으로 변천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중심연대는 기원전 4세기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도구 유적은 요령식동과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초기의 늦은 단계로도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서로 다른 양식의 동과가 공반되고 있고, 과목수영자식에 후행하는 형식으로 보면 전국중기의 이른 단계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⁸⁾ 즉 기원전 4세기 전반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다.

결국 1기의 상한연대는 과목수영자 유적과 우도구 유적 출토품을 통해 대략 기원전 400년경 전후 무렵, 중심연대는 기원전 4세기 전반무렵으로 설정된다.

(2) 요령식세형동검 2기

요령식세형동검 2기의 연대는 요서지역과 요동지역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단 구별해서 검토하고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요서지역에서 2

8) 孤山子 于道溝 90M1 출토품으로 알려진 유물들은 모두 발견수집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양수도 遼寧式銅戈의 상한연대를 전국초기 이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李陽洙 2008)

기의 상한연대는 고비점식(IVa식)의 등장시점과 직결되나 현재로는 간략하게 보고된 略左 北山根(園林處) 유적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北山根 石槨墓에서는 고비점식으로 추정되는 세형동검이 재지계의 粘土帶土器深鉢垂環耳壺 및 '陶鼎-陶盆'조합의 燕式陶器와 공반되고 있다. 토기 조합관계로 보면 대략 전국중기 이후로 볼 수 있겠으며(朱永剛 1997) 垂環耳壺에는 회전철흔과 유사한 흔적의 만륜기법이 확인되고 있어 灤平 梨樹溝門 유적 출토품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鄭君雷 2005) 또한 陶鼎은 敖漢旗 烏蘭寶拉格 유적 출토품과 비교되며, 陶盆은 새로이 추가된 기종이다. 于道溝 유적보다는 늦은 전국중기 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서지역에서 2기의 상한연대는 현재로는 자료가 부족하여 약간의 변동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요동지역에서 2기의 상한연대는 양갑산식(I b식)과 윤가촌식(IVb식)의 연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양갑산식은 재지계 토기가 조합되는 단계와 여기에 戰國燕系 打捺文土器가 조합되는 단계로 구별될 수 있는데 戰國燕系 鐵器나 明刀錢의 공반은 주로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윤가촌식 역시 재지계 토기와 無文灰陶가 조합되는 단계와 여기에 打捺文土器가 추가되거나 전국계 靑銅武器 및 鐵器가 조합되는 단계로 구별된다.

양갑산식의 연대는 遼陽 亮甲山 유적과 本溪 火車站 유적, 그리고 本溪 上堡村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조합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겠는데, 특히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本溪 上堡村 유적이,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瀋陽 鄭家窪子 유적의 연대관이 참고된다. 일단 세형동검 및 토기조합 관계, 그리고 明刀錢 및 철기의 공반 여부를 보면 유적간의 상대연대는 '鄭家窪子,亮甲山→火車站→上堡村'으로 설정된다.

양갑산 유적에서는 다수의 粘土帶土器深鉢(혹은 甕)과 黑陶長頸壺가 공반되는 토광묘가 확인되었고, 화차참 유적에서는 明刀錢과 鑄造鐵斧가 출토되는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上堡村 유적에서는 粘土帶土器深鉢과 打捺文短頸壺가 鐵鑿과 함께 공반되며(M1), 打捺文短頸壺만이 출토되는(M4) 석관묘(혹은 석곽묘)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 상보촌식 동검이 공반되어 양갑산식의 하한연대를 시사한다.

양갑산식의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부장토기의 배치상태와 형식학적 특징, 그리고 정가와자 유적 출토유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추정 가능하다. 鄭家窪子 토광묘에서는 재가공된 直刃形銅劍과 함께 黑陶長頸壺가 출토되었는데 분묘 구조와 장법 및 부장토기 양상 등이 亮甲山 토광묘와 매우 흡사하다. 다만 부장토기의 배치에서 정가와자의 것은 발치에만, 양갑산의 것은 허벅지 부근에서 출토되는 것도 있어 이전 단계와는 다소 다른 양상도 간취된다. 세형동검 형태를 고려하여 전국후기로 편년하는 연구자가 많은데(靳楓毅 1982; 林灃 1980·1997; 近藤喬一 2000; 吳江原 2002) 전국중기까지 올려보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李清圭 1993·2005; 朴淳發 1993; 姜仁旭 1996)

한편 粘土帶土器의 경우에는 파수의 형태와 점토대가 부착된 구연부의 형태 변화가 참조된다. 요동북부지역에서 확인되는 把手附粘土帶土器는 대체로 파수의 크

기가 작아지며 퇴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중소형의 棒狀把手 혹은 牛角形把手는 돌기모양의 소형 瘤狀把手(혹은 乳狀把手)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된다. 파수의 형태 변화를 통해 보면 유적간의 상대서열은 ‘公主屯后山 F1(중소형의 棒狀突起形把手)→亮甲山 M5(소형의 牛角形把手)→張家堡子 M1(瘤狀突起形把手)/上堡村 M3(瘤狀把手)’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왕의 연구성과(朴淳發 2004; 中村大介 2008)를 일부 수용하면 구연부와 점토대의 형태는 대체로 완만한 내경 혹은 직립하는 구연에 납작한 장방형 점토대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에서 직립 혹은 약하게 외반하는 구연에 말각방형의 점토대나 원형 점토대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이는 다시 미약하게 외반하는 구연에 원형점토대가 부착된 형태가 지속되는 한편 꺾이듯이 외반되는 구연에 삼각형으로도 볼 수 있는 점토대가 부착된 형태가 추가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면 유적간의 상대서열은 ‘公主屯后山(F1)→鄭家窪子(3지점3층,M2)→亮甲山(M5,M7)→上堡村(M1)’으로 설정된다.

결국 부장토기의 배치 양상, 점토대토기의 파수 형태와 점토대를 포함한 구연부의 형태 변화 양상을 통해 볼 때 양갑산 유적과 정가와자 유적(M2)은 시기 차이는 크지 않겠으나, 다소나마 양갑산 유적이 늦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장토기 수량이나 배치 양상으로 보면 양갑산의 토광묘는 長脚形의 豆形土器가 부장되는 단계, 즉 전국연의 토기부장 관습으로부터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갑산 유적은 정가와자 유적(3지점3층)의 늦은 단계인 전국중기 후반, 대략 기원전 4세기 후반을 크게 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윤가촌식의 연대는 旅順 尹家村 유적과 長海 徐家溝 유적 및 普蘭店 後元臺 유적을 통해 파악된다. 尹家村 積石木棺墓(M12)에서는 재지계 토기와 함께 戰國燕系 陶豆가 공반되었고, 後元臺 石槨墓에서는 打捺文短頸壺(甕)와 鑄造鐵斧 및 魏 ‘啓封’銘 銅戈, ‘〇王銘’ 銅鉞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徐家溝 石槨墓에서는 방제품으로 판단되는 桃氏劍이 공반되어 유물조합으로 보아 後元臺 石槨墓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적간의 상대서열은 ‘尹家村(M12)→徐家溝→後元臺’로 설정되며, 윤가촌식의 상한연대와 하한연대는 각기 2기와 3기에 해당되는 尹家村 M12와 後元臺 石槨墓의 반출유물을 통해 파악된다. 여기서는 윤가촌식의 상한연대 파악을 위해서 尹家村 M12에 주목하여 본다.

尹家村 M12는 이른바 ‘尹家村2期文化’에 속한 분묘이다. 윤가촌2기문화에 속한 유구로는 1963년 조사된 M4와 M12 등의 무덤 외에 수혈유구(H3,H11)도 확인되었으며, 1928년 조사된 官屯子河 추정무덤과 M1 등도 이에 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에서는 刻目文이 특징적인 二重口緣深鉢과 ‘明沙里形壺’의 조형으로 판단되는(把手附)外反口緣壺가 공반되며, 여기에 豆形土器가 추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外反口緣壺는 二重口緣深鉢과는 달리 세형동검 단계에 새로이 등장하는 기종으로 함께 공반되는 壺形土器 가운데 長海 上馬石 土壙墓(M4) 출토품과 동일한 기형을 보이는 것도 있고 기면이 비교적 단단하여 硬質無文土器와도 비교된다. 특히 주목

되는 것은 牧羊城 주변에서 확인된 甕棺墓인데 打捺文短頸壺 및 釜形土器가 조합된 3구형치식의 合口式甕棺墓의 主甕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국말~전한초 무렵으로 편년될 수 있다. 豆形土器는 대부분 長脚形으로 보고문과 달리 대체로 전국중기 이후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잘 찾아지는 기형이다. 특히 물레회전에 의한 요철면이 특징적인 M12 출토품은 燕下都 郎井村 10號 作坊 遺址 전국중기 陶豆와 비교되어 전국중기 후반으로 편년될 수 있다.(石川岳彦 2001·2008) 또한 長脚豆形土器의 구연부에 단이 진 속성 역시 전국중기 이후 잘 찾아지는 특징이다.

따라서 윤가촌 M12 역시 전국중기 후반, 즉 기원전 4세기 후반 무렵 혹은 그 이후에야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尹家村3期文化’, 즉 合口式甕棺墓와 木棺墓가 조성된 尹家村上層文化의 연대가 전국말~전한초 무렵으로 편년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적 자체는 기원전 4세기 후반~기원전 3세기 전반으로 편년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에 따라 윤가촌식의 상한연대는 양갑산식과 고비점식을 고려하여 대략 기원전 4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보면 2기의 상한연대는 양갑산식과 윤가촌식의 등장, 그리고 長脚豆形土器 등과 같은 전국연계 無文灰陶의 부장 양상을 감안하여 대략 기원전 4세기 후반으로 설정된다.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 2기의 하한연대는 3기의 상한연대 설정으로 판단되었으나 요동북부지역의 본계 유가초 유적 출토품이 그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요령식세형동검 3기

요령식세형동검 3기의 연대는 요동지역의 마가자-상보촌식(Ⅲ1c식,Ⅲ2c식)과 길림지역의 오현리-왕둔식(Ⅲ1a식,Ⅲ2a식)의 연대와 관련되며, 특히 상한연대는 상보촌식(Ⅲ2c식)과 왕둔식(Ⅲ2a식)의 등장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나 공반유물이 확인되는 것은 상보촌식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보촌식의 연대는 공반되는 전국계 打捺文灰陶와 철기, 그리고 청동무기와 明刀錢 및 銅鏡 등을 통해 대략 전국말~전한초 무렵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打捺文短頸壺와 공반된 本溪 上堡村 石棺墓 출토품과 觸角式細形銅劍 양식으로 戰國系銅鏡과 공반된 本溪 朴堡村 石棺墓 출토품이 주목된다. 두 유적에서는 粘土帶土器深鉢이 공반되긴 하나 打捺文(繩文)短頸壺와 전국말~전한초 양식의 銅鏡이 본격 부장되는 단계의 유적이다. 蟠螭文鏡은 납작한 周緣에 반원형 小鈕를 지녔으며, 地文이 渦文으로 구성된 것인데⁹⁾ 대체로 전국말~전한초에 유행한 양식으로 이해된다.(岡村秀典,1984·2007) 따라서 상보촌 유적과 박보촌 유적은 기원전 3세기 후반 전후 무렵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보촌식의 상한연대는 기원전 3세기 중엽으로 설정된다. 결국 3기의 상한연대는 선행형식인 마가자식과 오현리식의 등장시점을 고려하여 대략 3세기 전엽으로 설정될 수 있다.

9) 蟠螭文鏡의 鈕와 周緣은 前漢代에 들어와 三弦鈕에 匕面緣을 지닌 형식 외에 半圓形鈕에 납작한 突起緣을 지닌 형식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姜銀英 2001)

한편 3기에는 한반도의 서북한지역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요령식세형동검이 사용되고 있어 편년적인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대략 ‘대청산식(Ⅱ1a식)→오현리식(Ⅲ1a식)→신송리식(Va식)’의 순으로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신송리식은 평원 신송리 土壙墓 출토품이 桃氏劍, 銅鉞 및 청동용기편 등과 공반되었으며, 평양 석암리 유적 출토품이 山字文鏡 및 素地連弧文鏡이 공반되어 구체적인 편년이 가능하다. 山字文鏡은 방격뉴좌에 匕面緣을 지닌 4山鏡으로 전국중기이후 전국후기까지 유행한 형식이다.(宮本一夫 1990; 鄧秋玲 2003) 素地連弧文鏡은 원권뉴좌에 半球緣을 갖는 것으로 秦 혹은 前漢初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岡村秀典, 2007) 따라서 신송리식은 전국말기~전한전기로 편년될 수 있고, 오현리식은 韓國式細形銅劍 및 細形銅鉞와 공반되어 대청산식과 신송리식의 사이, 대략 전국말기로 편년될 수 있다.

요컨대 요령식세형동검 3기의 상한연대와 하한연대는 요동북부지역과 요동동부지역에서 마가자-상보촌식의 등장과 소멸 시기를 고려하고, 서북한지역에서 오현리식과 신송리식의 유행시기를 감안하여 각기 기원전 3세기 전엽과 기원전 2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기의 상한연대 역시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설정될 수 있다.

요령식세형동검 4기

요령식세형동검 4기의 하한연대는 길림지역과 서북한지역에 잔존하는 觸角式銅劍 양식의 상보촌식(Ⅲ2c식)과 왕둔식(Ⅲ2a식)의 연대로 파악 가능하나 공반유물이 확인되는 것은 왕둔식에 한정되고 있다. 왕둔식의 연대는 길림지역의 경우 보고자료 부족으로 東遼 石驛公社 彩嵐屯 고분군 채집품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서북한지역의 경우 평양 토성동 木槲墓(M486) 출토품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彩嵐屯 고분군에서는 超長鋒形의 세형동검편과 觸角式鐵劍을 비롯한 다양한 철제 무기, 그리고 재지계 무문토기와 漢式灰陶가 출토되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前漢鏡과 半兩錢 및 五銖錢이 반출되고 있다. 虺龍文鏡이 출토되지 않아 대체로 기원전 2세기 후엽~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성격의 西豐 西岔溝 고분군에서는 五銖錢과 虺龍文鏡 등이 출토되어 彩嵐屯 고분군의 연대 폭을 포괄하면서 약간 늦은 기원전 2세기 후엽~기원전 1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길림중서부지역에서 왕둔식의 하한연대는 彩嵐屯 유적과 西岔溝 유적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대략 기원전 100년경 무렵으로 볼 수 있다.¹⁰⁾

토성동 M486 출토품은 韓國式細形銅劍·葉脈文細形銅戈 및 細地獸文鏡과 素文鏡, 그리고 다량의 철제무기 등 다량의 前漢代 금속유물과 공반되고 있다. 그리고 ‘上’字銘 금괴 등의 유물로 보아 수장급묘로 추정된다.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¹¹⁾ 蟠螭文鏡 계통의 細地獸文鏡의 전세 혹은 늦은 유입 가능

10) 이에 비해 오영찬은 榆樹 老河深 중층묘군을 다루면서 ‘西岔溝→彩嵐屯’의 상대연대를 설정하고 있다.(오영찬 1999)

11) 리순진은 銅鏡의 전세를 부정하고 유적을 기원전 2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고,(리순진 1996) 이청규는 銅鏡

성이 일부 인정되는 반면 정백동 M37(북곡)보다 한단계 빠를 가능성이 높아 낙랑설치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북한지역에서 왕둔식의 하한연대는 대략 기원전 100년경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이와같이 요령식세형동검 4기의 하한연대는 왕둔식의 소멸시기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겠는데 대략 기원전 100년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과 보고된 자료가 많지 않아 향후 조사성과에 따라 하한연대는 다소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양상과 한반도 - 요령지역을 중심으로 -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혹은 한국식동검문화)에 비해 지역별로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세형동검의 형식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유구·유물의 성격 역시 달리하기 때문인데 물론 이러한 다양성의 이면에는 주민집단의 성격을 비롯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細形銅劍文化’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요령식세형동검을 표지로 하는 세형동검문화의 양상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舊高(이후석 2008)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에 대해 주로 살펴본다.

[표 6] 요령식세형동검의 변천과 세형동검문화의 양상

지 역		요서지역	요동남단지역	요동북부지역 요동동부지역	길림중서부지역	서북한지역
분기 역사적맥락	시기 (기원전)					
1기 燕文化 확산	400년경전후 ~4세기전반	과목수영자식, 대청산-길상둔식	(대청산식?)	(과목수영자식?)		
2기 燕勢力 일부진출	4세기후반~ 3세기초엽	대청산-길상둔식, 고비점식	대청산식? (고비점식?) 윤가촌식	대청산-길상둔식, 양갑산식, 조가보자식	대청산-길상둔식	대청산-길상둔식 (고비점식?)
3기 燕郡縣 재편	3세기전엽~ 2세기전엽		윤가촌식 (신송리식?)	양갑산식, 조가보자식 마가자-상보촌식	대청산-길상둔식 오현리-왕둔식	오현리식 (마가자식?) (윤가촌식?) 신송리식
4기 漢郡縣 정립	2세기중엽~ 100년경전후			(상보촌식?)	왕둔식	왕둔식 (상보촌식?)

의 전세를 일부 인정하나 청동유물조합상은 기원전 2세기대로 편년하였다.(李清奎 2005) 또한 강은영은 銅鏡의 유입시점을 기원전 2세기 후반 이후로 보면서 유적을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고.(姜銀英 2001) 高久健二는 銅鏡이 전세되었음을 인정하며 유물조합 및 목곽구조 비교를 통해 유적을 기원전 1세기 중후엽으로 편년하였다.(高久健二 1999) 한편 宮本一夫는 觸角式銅劍의 검토과정에서 세형동검은 기원전 2세기대, 유적은 樂浪設置 이후로 편년하였다.(宮本一夫 2002)

1. 요서지역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 요령식세형동검의 등장과 전국연문화의 확산, 한국식(세형)동검문화요소의 확인

요서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령식세형동검 1기와 2기에 한정되며, 전국중기, 즉 기원전 4세기대가 중심연대이다. 大凌河上流의 喀左-建昌 일대와는 달리 大凌河中下流의 朝陽 일대의 양상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요서지역은 요령식세형동검의 출현지역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나 戰國燕 문화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요동지역에 비해 오래되지 않아 소멸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형동검은 과목수영자식(Ⅰa)과 대청산식(Ⅰb)이 주요 형식이며, 윤가촌식(Ⅳb)의 조형으로 판단되는 고비점식(Ⅳa)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검의 형태에서 다양성이 확인되며, 검부속구에서는 기존의 T形靑銅劍柄 외에 새로이 銅木混合式의 ‘果木樹營子式劍柄’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석제검과두식의 경우 요하이동지역에서 널리 유행하는 밀이 오목하게 들린 형태의 獸乳形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확인된다.

戰國燕文化가 확산되어 중원계 청동무기와 전국연계 토기가 공반되는 예가 적지 않긴 하나 철기나 타날문단경호의 부장은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묘제로는 石槨墓나 土壙墓 외에 積石木(棺)槨墓가 확인된다. 동물뼈를 함께 묻는 장법이나 縱狀環形把手가 달린 토기에서 하북북부지역 등의 북방중원계 청동기문화에서 유래하는 요소도 일부 확인되나 보통 전국연문화와 함께 확인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 즉 韓國式(細形)銅劍文化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遼寧式銅戈(趙鎮先 2009)의 등장이다. 遼西式銅戈(小林靑樹·石川岳彦·宮本一夫·春成秀爾 2007)로도 불리는데 특히 ‘双胡戈’는 韓國式(細形)銅戈의 조형으로 판단되고 있고, 1기에는 주로 요서남부지역에서 확인되나 2기 이후에는 요동동부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분포상과 공반유물상이 좀 더 밝혀지게 될 경우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 정립과정 역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双胡戈 胡의 형태변화를 통해 보면 한국식(세형)동과는 요동동부지역 출토품에 비해 늦어 3기 이후, 즉 기원전 3세기 전엽 혹은 그 직후에야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韓國式(細形)銅劍文化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이 銅鐸인데 한국식세형동검문화 초기(성립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것이 현재 凌原 三官甸子 유적과 喀左 果木樹營子 유적에서 출토 예가 보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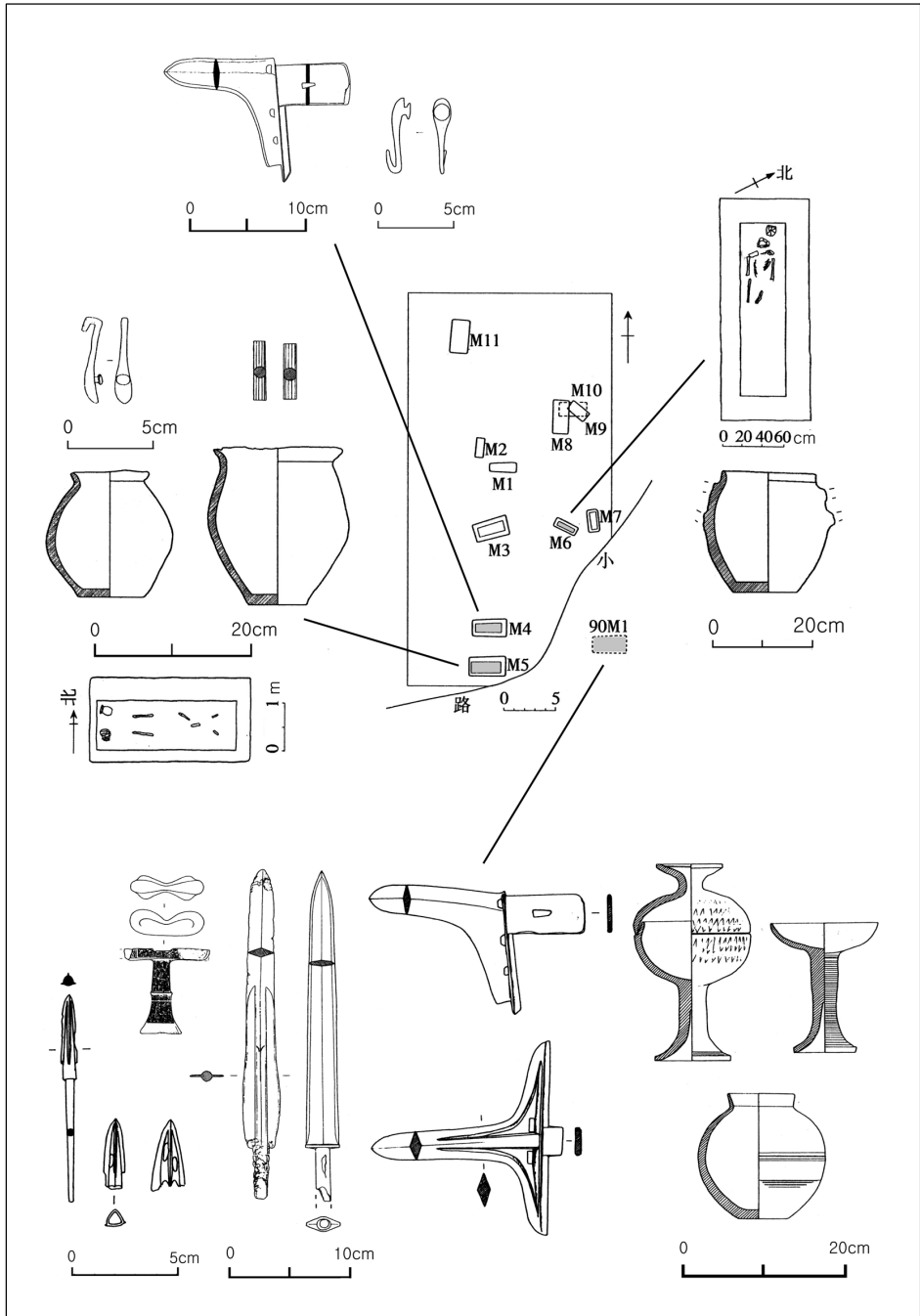
토기류에서는 陶豆, 陶鼎 등의 戰國燕式 토기가 부장되나 粘土帶土器深鉢(혹은甕)이나 把手附壺(혹은 罐)와 같은 재지계 토기류도 함께 확인된다. 특히 長脚豆形土器의 경우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로 단면 장고형의 대각을 지닌 형태여서 燕下都 등의 燕 중심지역에서 확인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나 요하이동지역 혹은 한반도에서 흔히 확인되는 단면 나팔형의 곡선적인 대각을 지닌 것은 잘 찾아지지 않고 있다. 보고자료의 증가에 따라 향후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일단 회전성형 등의 製陶기술 차이에 의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서지역에서 요령식세형동검 등의 세형동검문화요소가 확인되는 역사적인 배경

에는 燕侯와 朝鮮侯의 ‘稱王’사건으로 대변되는 戰國燕과 주변 세력집단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이 고려된다.¹²⁾ 물론 戰國燕과 요령지역 세력집단과의 대립·갈등관계는 문헌기록대로 기원전 4세기 후반경에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략 전국 중기 무렵부터 연문화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기원전 4세기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요서지역에서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燕세력의 군사적 진출에 의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으나 달리 보면 ‘대등 정치체간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¹³⁾ 즉 전쟁 이외에도 교역, 모방경쟁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不攻。(『三國志』卷30, 魏書 第30, 東夷傳 韓所引 『魏略』)

13) ‘대등 정치체간 상호작용(peer polity interaction)’이란 인접한 지역의 대등한 단위정치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문화 요소의 모방, 기술전이, 상호경쟁, 전쟁, 교역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콜린 렌프류폴 반 지움 / 이희준 옮김 2006)



[도면 6] 건창 고산자 우도구 유적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

2. 요동남단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 윤가촌식 동검의 유행과 전국연문화의 단계적 파급

요동남단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대련지구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요령식세형동검 1기에는 長海 上馬石 유적 출토품이 가능성이 있겠으나 현재로는 세형동검의 존재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 유행시기는 대체로 2기와 3기에 해당되어 절대연대로는 대략 기원전 4세기 후반~3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세형동검은 윤가촌식(IVb식)이 주요 형식으로 長海 上馬石 M2 출토품과 같은 대청산식 등의 재가공품으로 추정되는 것을 제외하면 고비점-윤가촌식만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T형청동검병 등의 검부속구를 비롯하여 공반되는 전국계 청동무기(桃氏劍, 銅戈) 및 재지계 청동농공구류(銅斧, 銅鑿)의 조합관계나 형태에서 서북한지역 출토품과 유사성이 높아 밀접한 교류관계를 시사한다. 묘제 역시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와도 밀접한 積石木棺墓와 合口式甕棺墓가 확인되어 주목되나, 다만 묘제상의 積石구조나 戰國燕式 陶豆의 부장 및 直刃形에 가까운 동검 형태 등은 요서지역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다.¹⁴⁾

세형동검과 함께 戰國燕系 유물이 부장되기 시작하나 무문토기질의 外反口緣壺나 二重口緣深鉢(甕) 등의 재지계 토기 역시 확인된다. 공반유물이 豆形土器 등의 無文灰陶에 한정되는 단계(2기)와 여기에 打捺文短頸壺와 鐵器가 추가되는 단계(3기)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대련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요동남단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旅順 尹家村 유적으로 대표되는 ‘尹家村2期文化’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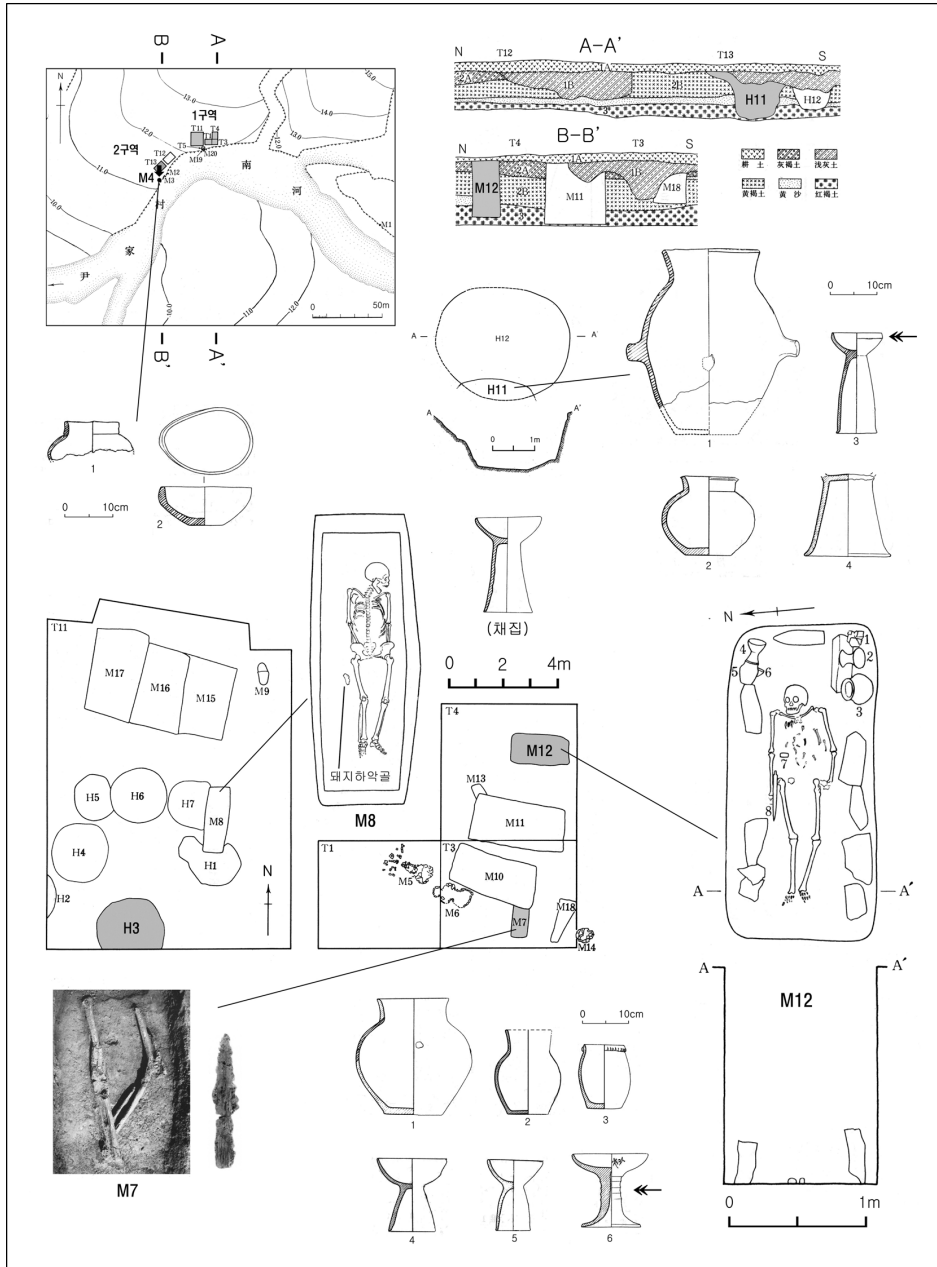
尹家村2期文化에서 가장 특징적인 토기는 무문토기질의 外反口緣壺(혹은 甕)와 長脚形에 가까운 豆形土器이다. 중대형의 外反口緣壺에 棒狀把手가 부착된 형태는 서북한지역의 초기철기시대 토기를 대표하는 ‘明沙里形土器壺’의 祖形으로 이해되고 있다.(崔秉鉉 1998; 李在賢 2003) 처음에는 일상용기로 제작되었으나 점차 옹관으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뚫힌 파수가 부착되고 동체 중위 이하에 원형에 가까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옹관으로 사용된 신천 명사리 유적 출토품에서는 구멍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천 늑도 유적 출토품에서는 구멍과 파수는 물론 기형 역시 유사한 것도 확인되고 있다.¹⁵⁾ 따라서 늑도 유적의 일부 유구들은 명사리 유적과 동일단계에 속하거나 향후 서북한지역에서 늑도 유적 출토품에 선행하는 것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대형의 外反口緣壺가 打捺文短頸壺 및 釜形土器와 조합된 3구횡치식의 合口式甕棺墓(28M3)가 牧羊城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어 토착주민집단에 戰國燕系의 合口式甕棺墓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옹관묘는 打捺文短頸壺 및 釜形土器로 보아 전국말~전한초로 편년되며(정인성 2010) 이를 통해 대략 전한초기에는 한반도지역에 合口式甕棺墓가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長海 上馬石 土壙墓(M3) 출토품의 예로 보아 요동남단지역에도 (灰黑陶)長頸壺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上馬石 M3에서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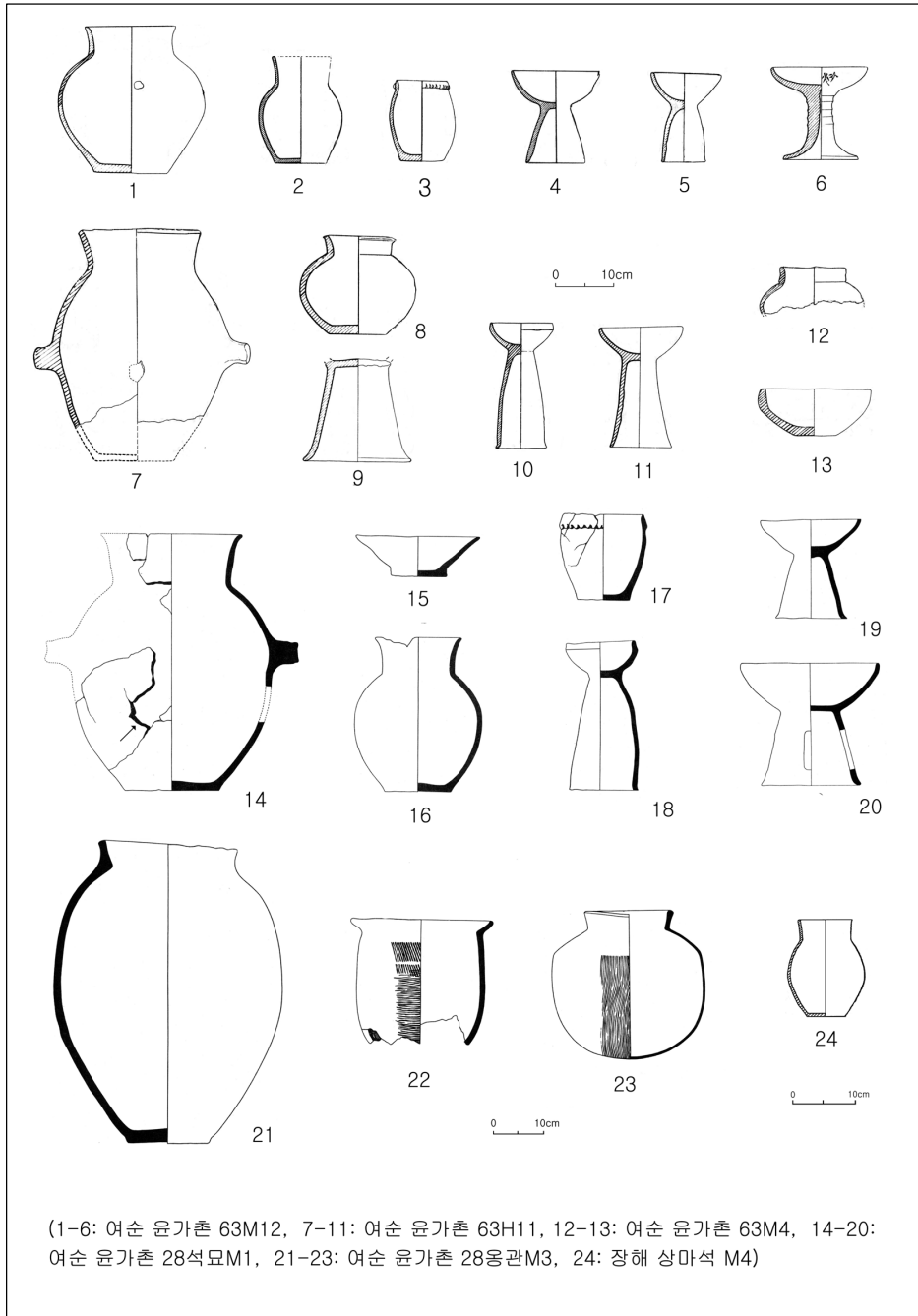
14) 요동반도 해안일대의 특징적인 무덤으로 이해되는 ‘貝墓’가 발해만을 따라 요서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는 점은 이전부터 이어오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15) 윤가촌 유적과 명사리 유적 및 늑도 유적 출토품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속성을 지닌 기종을 ‘明沙里形土器壺’보다는 ‘尹家村式土器壺’로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으로 본다.

반된 平底長頸壺는 평양 신성동 석곽묘 출토품과 매우 비슷한 형태이다. 다만 上馬石 M3은 인접한 上馬石 M2와는 묘광 장축방향이 반대이며, M2가 M3 묘광 한쪽 단벽을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한 시기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 된다.



[도면 7] 여순 윤가촌 유적(1963년)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



[도면 8] 윤가촌2기문화의 토기류

3. 요동북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 양감산식 동검과 마가자-상보촌식동검의 유행, 재지계 토기문화와 전국연문화의 공존

요동북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요하평원지역과 천산산맥 서측의 산간구릉지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요령식세형동검 1기의 양상은 本溪 沙窩 石棺墓 출토품의 예로 보아 과목수영자식이나 대청산식이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반유물상이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주된 유행시기는 2기와 3기에 해당된다. 2기의 유적들은 주로 요하평원지역 부근에서 확인되나 3기의 유적들은 대개 천산산맥 서측의 산간구릉지대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本溪 일대는 요동북부지역과 요동동부지역의 접이지대로 분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세형동검은 양감산식(Ⅰb)과 마가자-상보촌식(Ⅲ1c,Ⅲ2c)이 주요 형식이며, 이외에도 대청산-길상둔식(Ⅱ1a,Ⅱ2a)과 조가보자식(Ⅱ1c)도 출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형식들이 확인되며, 특히 本溪 일대에서 가장 다양한 형식의 세형동검이 확인되고 있다. 검부속구는 分鑄式의 T形靑銅劍柄 외에 合鑄式의 觸角式劍柄도 확인되고 있어 길림지역과의 교류관계도 상정된다. 석제검과두식의 경우 밀이 약간 들린 枕形과 獸乳形 외에 평면 ‘××’자형의 결박홈을 지닌 단면 ‘凸’字形에 가까운 것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고, 토제검과두식도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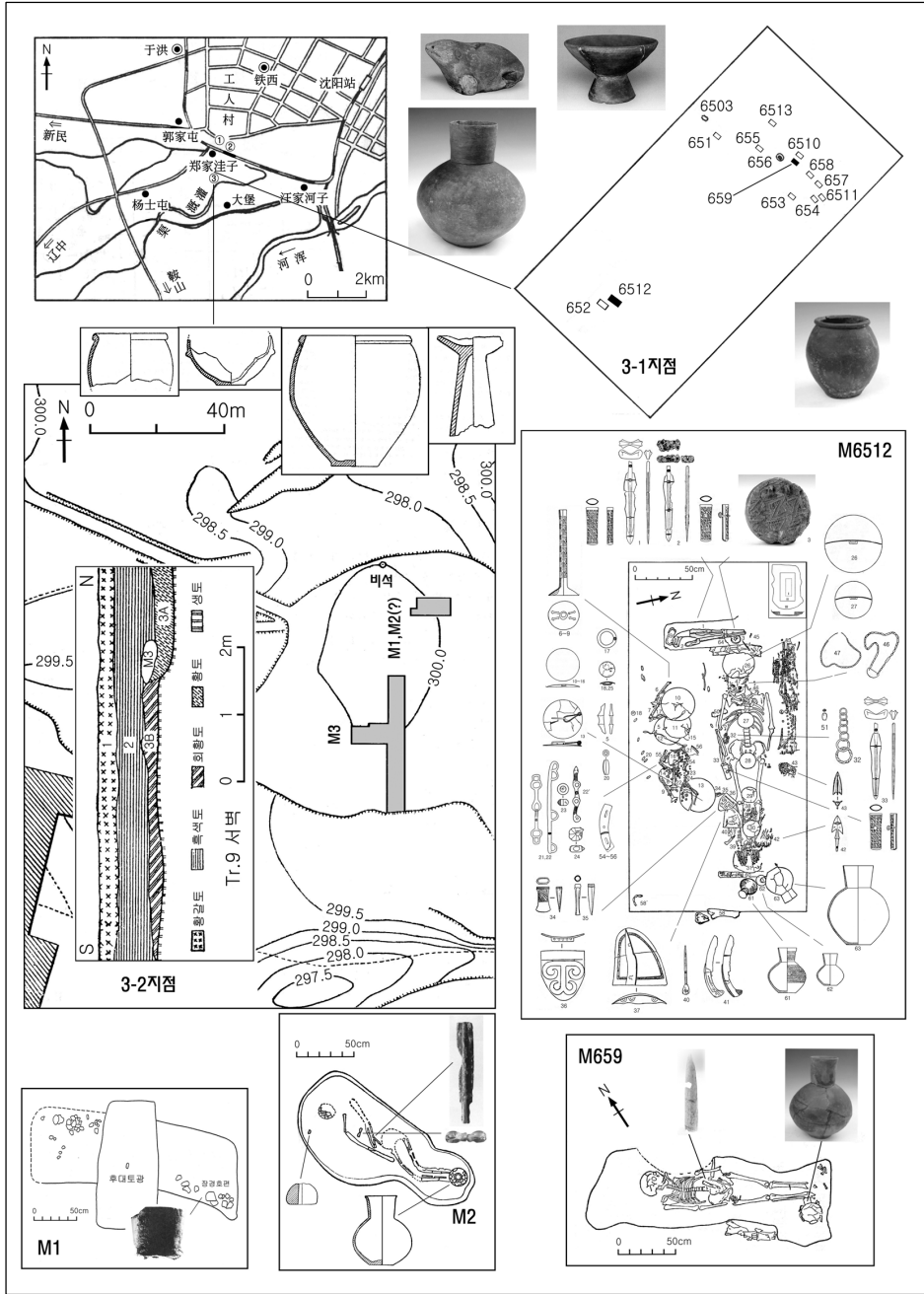
세형동검과 함께 戰國燕系 유물이 부장되기 시작하나 요동남단지역에서처럼 공반유물이 豆形土器 등의 無文灰陶에 한정되는 단계(2기)와 여기에 打捺文短頸壺와 鐵器가 추가되는 단계(3기)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다만 本溪 劉家哨 石棺墓 출토품과 같은 多鈕水鳥文鏡이 확인되고 있고 평양 석암리 유적에서 山字文鏡이 확인되고 있어 戰國系 銅鏡은 일찍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 多鈕星文鏡의 조형 역시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遼寧式銅戈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本溪 望城崗子 石棺墓에서 韓國式(細形)銅鉞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細身形銅鉞가 출토된 바 있어 일정한 영향관계 혹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기류에서는 戰國燕式의 陶豆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長脚形의 豆形土器가 성행하였는데 明刀錢과 같은 戰國燕系 금속유물과도 공반되나 (灰黑陶)長頸壺나 粘土帶土器甕(혹은 深鉢) 등의 재지계 토기류와 공반되는 예도 확인된다. ‘粘土帶土器 + 黑陶長頸壺’의 부장토기 조합상은 이전 단계부터 있었는데 현재까지 자료로는 遼陽 亮甲山 유적으로 대표되는 양감산식 동검에서부터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傳 撫順 출토품과 같은 말기비파형동검이나 대청산식 동검과 공반되는 예가 이전 단계의 양상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瀋陽 鄭家窪子 3지점 묘지에서 출토된 圓形粘土帶土器는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鄭家窪子 유적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M6512 단계를 지나서야 부장토기로 ‘粘土帶土器 + 黑陶長頸壺’조합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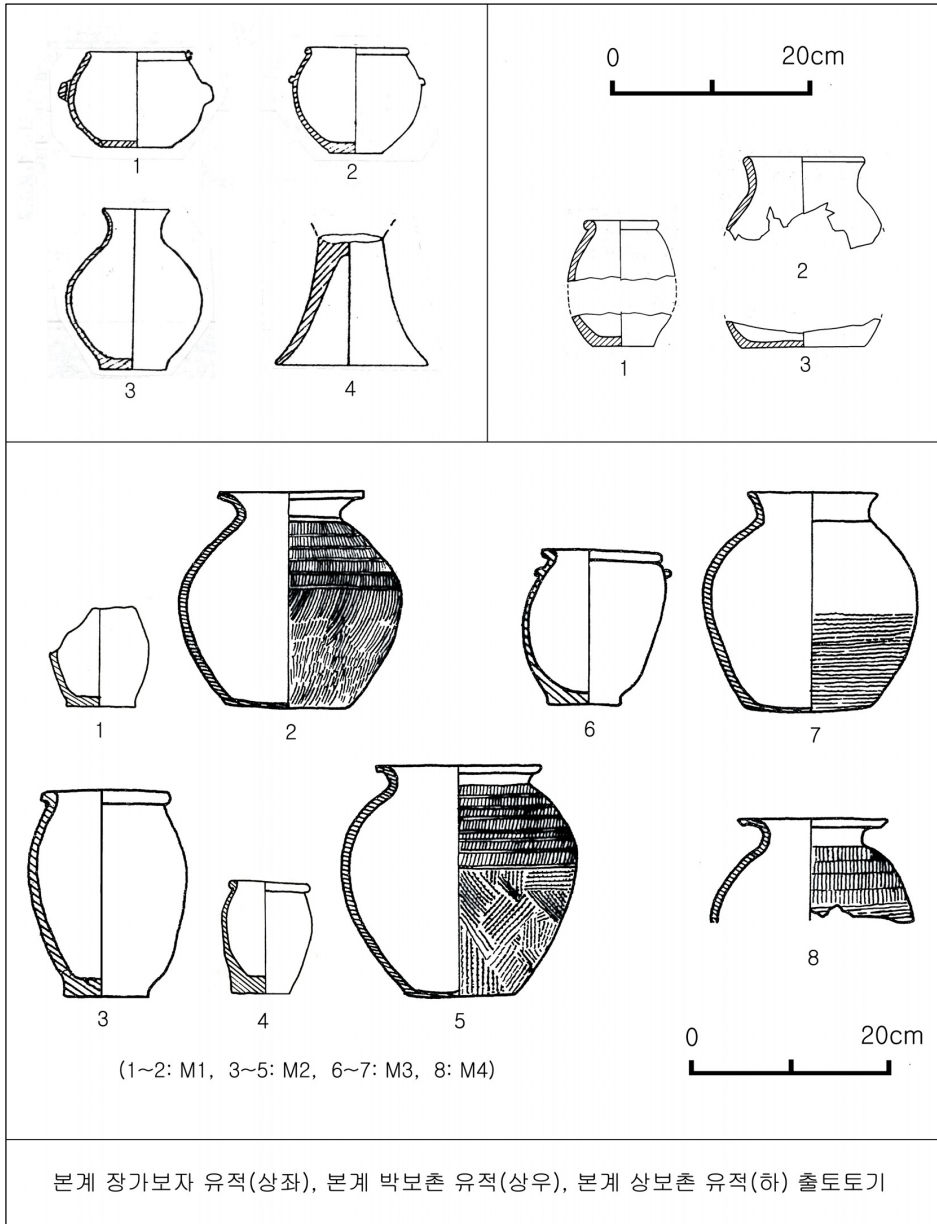
한편 한반도의 粘土帶土器文化와 관련하여 요동북부지역에서 三角形粘土帶土器나 硬質無文土器가 아닌 圓形粘土帶土器와 打捺文短頸壺가 늦은 시기에도 공반되는 것으로 미루어 圓形粘土帶土器에서 三角形粘土帶土器로의 단선적인 변천 도식은 성립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釜形土器의 구연부 형태나 煮沸用이라는 기능적인 측면(鄭仁盛 2008·2010)을 고려하면 이로부터 영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¹⁶⁾ 또한 長脚形의 豆形土器가 전국중기 이후, 특히 기원전 4세기 후반 무렵부터 본격 부장되었음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의 등장시점 역시 그 이전으로 올려보기 곤란하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圓形粘土帶土器의 출현은 늦더라도 기원전 4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요동북부지역에서 長脚豆形土器 등장 이후 공반되는 圓形粘土帶土器가 대개 深鉢形 혹은 이에 가까운 기형을 지닌다는 점에 있어서도 반증된다. 유적간의 상대서열로 말하자면 公主屯后山 유적(F1)보다 늦고 鄭家窪子 3지점 문화층(3층)보다는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올려보면 대략 전국초기의 어느 무렵, 대략 기원전 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16) 이성재도 圓形粘土帶土器에서 三角形粘土帶土器로의 변천을 戰國燕系 생활용기의 영향으로 인한 외반구연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성재 2010)



[도면 9] 심양 정가와자 유적(3지점)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



[도면 10] 본계지역 세형동검문화 유적 출토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토기

4. 요동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한반도

：조가보자식 동검과 마가자-상보촌식 동검의 유행, 재지계 청동기의 발달

요동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千山山脈 동부의 단동지구와 渾江-鴨綠江流域의 통화지구에서 확인된다. 요령식세형동검 2기와 3기에 주로 유행하며 4기의 양상은 자세하지 않다. 戰國燕系 초기철기문화가 파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계의 청동기가 상당히 발달하는 점이 특징이다.

세형동검은 죽절형 마디가 특징적인 조가보자식(Ⅱc)과 마가자-상보촌식(Ⅲ1c,Ⅲ2c)이 주요 형식이며, 細形銅劍鎔范이 출토되었으나 아직 자세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북한지역에 인접한 千山山脈 일대에서 죽절형 마디를 지닌 형식이 집중 출토되는 것은 韓國式細形銅劍文化와의 교류를 상정케 한다. 향후 자료가 증가하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검부속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觸角式劍柄도 확인되고 있어 길림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시사한다. 다만 길림중서부지역이나 서북한지역에서처럼 觸角式鐵劍 등의 銅柄鐵劍으로 전환되는 양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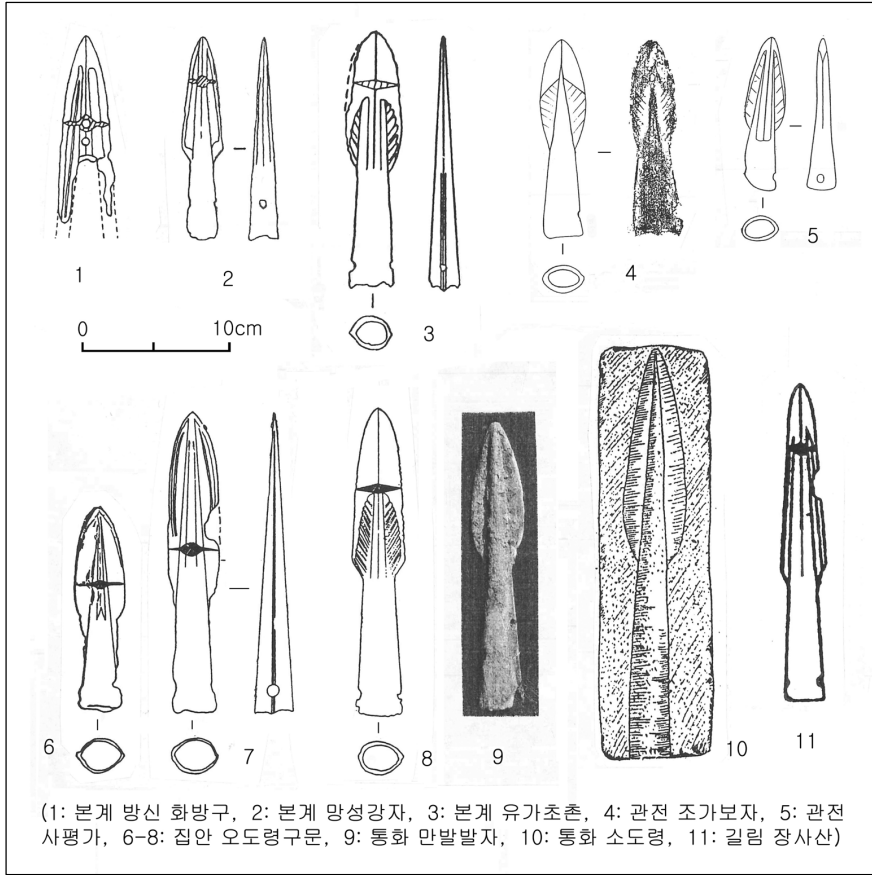
韓國式(細形)銅劍文化에도 확인되는 多鈕粗細文鏡類의 多鈕星文鏡과 多鈕葉脈文鏡이 출토되며, 葉脈文(柳葉形)銅鏃, 斜格子文扇形銅斧 등의 문양 있는 청동기의 유행이 특징이다. 특히 엽맥문 모티프는 북방초원계 문화요소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요동동부~길림지역에서 양식화, 지역화된 문양이다. 다만 葉脈文銅鏡의 경우 주변부가 돌기연을 이루는 점에서 전국계 동경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엽맥문 모티프는 韓國式(細形)銅戈의 문양으로 채택되고 있고, 多鈕格子文鏡도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觸角式劍柄과 함께 서북한지역의 韓國式(細形)銅劍文化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遼寧式銅戈 후기형식이 출토되어 韓國式(細形)銅戈의 성립 계기와 시점에 대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묘제는 대부분이 石棺墓 혹은 大石蓋石棺墓로 많은 무덤에서 積石시설이 확인되고 있고 새로이 積石墓가 등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체로 전자는 2기 후반, 후자는 3기 후반부터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集安 五道嶺溝門 유적이나 위원 龍淵洞 유적이 초기 積石墓로 알려지고 있긴 하나(張雪岩 1993 및 藤田亮策 1948; 小泉顯夫 1986) 조사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戰國末~前漢初 무렵 혹은 그 직후에 형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겠으며, 재지세력이 청동 무기에서 철제무기를 사용하는 단계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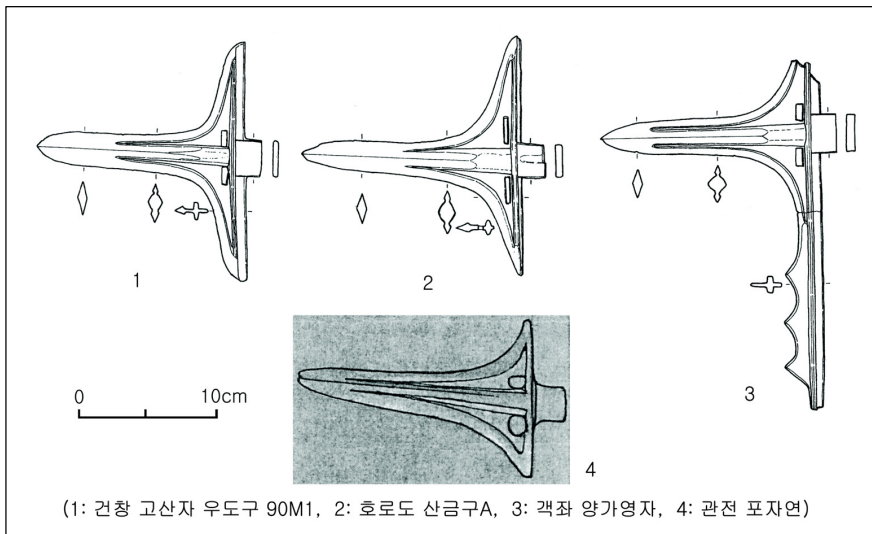
한편 集安 일대에서 漢代의 철제농공구나 半兩錢·五銖錢 등이 다수 수습되고 있고, 桓仁 大甸子 抽水洞 유적에서 鐵鏃·鐵莖銅鏃 등이, 위원 龍淵洞 유적에서 鐵鏃가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이때에는 철제무기도 제작되고 있었으며, 漢代鐵器文化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토착주민집단은 滄海郡의 置廢 과정을 통해보면 漢과의 타협관계 속에서 漢代鐵器文化를 적극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玄菟郡 移置 과정에서 漢과의 상쟁

관계 속에서 한층 독자적인 철기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漢代鐵器文化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세형동검문화는 점차 소멸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듯 이러한 세력은 ‘貊’과 ‘句麗’를 형성한 토착집단으로 이해되며,(余昊奎 2008; 송호정 2007) 桓仁 望江樓 고분군과 같은 積石墓群의 출현에서 보이듯이 길림중서부 지역과도 활발하게 교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1] 요동북부지역 및 요동동부지역 출토 제지계 동모



[도면 12] 요서지역 및 요동동부지역 출토 요령식동과

VI. 결 론

여기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며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양상과 역사적 맥락의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하려 한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直刃形 혹은 細身形의 동검들은 한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韓國式細形銅劍과 대비하여 遼寧式細形銅劍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령식세형동검은 중국 하북지역으로부터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요령식세형동검은 검신 하부 형태는 鑄型 속성을, 등대 마디 형태는 研磨 속성을 각각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두 속성간의 조합관계를 통하여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요령식세형동검은 요서지역에서 등장하여 주변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식을 파생시키면서 변천한다. 대체로 ‘과목수영자식→양감산식, 대청산-길상둔식→조가보자식→마가자-박보촌식,오현리-왕둔식’으로 변천하는 계열과 ‘고비점식→윤가촌식→신송리식’으로 변천하는 계열로 양분되나 일부 변천과정은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 여러 형식 가운데 대청산-길상둔식은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고, 윤가촌식과 신송리식은 각기 요동남단지역과 서북한지역에 밀집 분포하고 있어 가장 뚜렷한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령식세형동검은 검병과 결합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劍柄別鑄의 組立式銅劍 형태로 등장하여 劍柄一鑄의 觸角式銅劍 형태로 변천된다.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양상에 대해서는 요하이동지역으로 중국 군현이 확대 설치되는 역사적 맥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燕將 진개의 東征으로 상징되는 遼東郡 설치 무렵에는 군사적인 긴장관계로 인해 전국계 철기나 청동무기 등과 같은 전략물자가 철저히 통제되어 토착집단의 무덤에 부장되는 예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며, 토착집단은 나름의 교류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중원계의 청동기문화 요소를 받아들여 觸角式劍柄이나 葉脈文 청동기 등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청동기를 제작·사용·부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원지역 통일전쟁 여파로 인한 遼東郡 재편 무렵에는 燕의 정치적·군사적 필요와 통제력 약화 및 토착집단의 경제적·사회적 욕구로 인해 양자간의 관계가 보다 타협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어 전국계 철기와 청동무기 등의 유통이 한층 활발해졌으며, 이후 秦漢交替期를 통한 유이민 파동을 거치면서 주변지역으로 더욱 널리 파급된 것으로 여겨진다.

漢에 의한 遼東郡이 재정립될 무렵 토착집단 역시 뚜렷한 정치체로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武帝代의 漢과 匈奴의 역학관계 변화와 길림중서부지역에서 ‘夫餘’, 요동동부지역에서 ‘句麗’, 서북한지역에서 ‘衛滿朝鮮’이 각각 성장하는 과정은 漢代鐵器文化의 본격적인 수용 및 細形銅劍文化의 쇠퇴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동지역과 길림지역이 철기문화단계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형동검문화가 지속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요서지역에는 이미 전국후기 이전부터 전국연의 문화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요동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戰國燕과 요서지역 재지계 토착집단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혹은 타협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요구된다.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지역성 혹은 다양성은 비파형동검 단계 청동기문화의 내재적 측면에서 기인한 바 있겠지만 그와 함께 세형동검 단계 戰國燕과 秦漢 등의 중원세력과 중국 동북지역 재지계 토착집단 간에 변화된 역학관계 및 문화변동 속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전국연의 요령 지역 진출 이후 지속되는 역사문화 변동은 기존의 문물교류 관계망을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유형의 교섭체계 혹은 교역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착집단 간의 청동유물과 그 제작기술의 교류 네트워크 역시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한국식세형동검문화에 비해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조사보고문은 도면1의 출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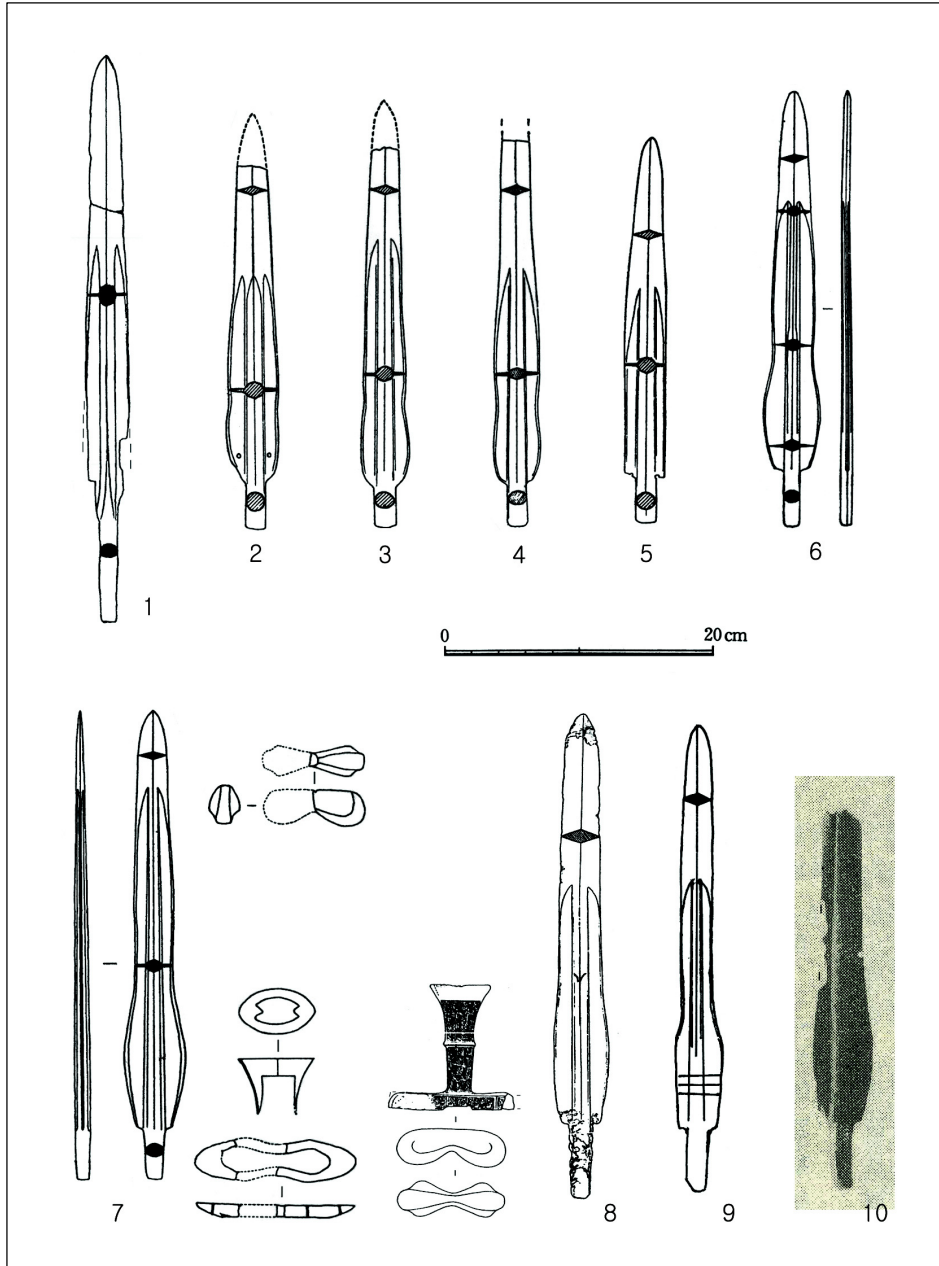
- 姜仁旭, 1996, 「遼寧地域 琵琶形銅劍에 대한 一考察」『韓國上古史學報』21, 韓國上古史學會.
-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특별전 도록), 2006.
- 金美京, 2009, 「遼東地域 青銅器時代 土器文化圈 설정에 대한 再檢討 - 涼泉文化를 中心으로」『湖西考古學』21, 湖西考古學會.
-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考古美術史論』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 朴淳發,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過程」『錦江考古』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 朴辰一,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韓國青銅器學報』1(創刊號), 韓國青銅器學會.
- 성경당, 2008, 「燕下都 短內式 銅戈 小考」『현대사회과학연구』12,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成璟瑋·孫建軍, 2009, 「于道溝遺蹟 出土 青銅武器에 대하여」『考古學探究』5, 考古學探究會.
- 吳江原, 2002, 「遼寧~西北韓地域 中細形銅劍에 대한 연구」『清溪史學』16·17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오강원, 2003, 「琵琶形銅劍~細形銅劍 T字形 青銅製劍柄의 型式과 時空間的 樣相」『韓國上古史學報』41, 한국상고사학회.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 吳江原, 2009, 「요령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조사 및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유은식, 2009,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의 변천과 연대」『韓國上古史學報』64, 韓國上古史學會.
- 李健茂, 2003, 『韓國式銅劍文化의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남규, 2006, 「낙랑지역 한대 철제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李陽洙, 2008, 「韓國式銅戈로 본 韓·中·日 三國의 交叉編年」『樣式의 考古學』, 제3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발표요지.
- 李在賢, 2003, 「영남지역 三角形粘土帶土器의 성격」『新羅文化』33,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 李清圭, 1993,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國史觀論叢』42, 國史編纂委員會.
- 이청규, 2004, 「철기시대 전기의 중국 동북과 한반도의 금속기문화 - 세형동검문화를 중심으로」『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 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周邊社會」『北方史論叢』6, 高句麗研究財團.
- 李清圭, 2010, 「多鈕鏡 型式의 變遷과 分布」『韓國上古史學報』67, 韓國上古史學會.
- 李亨源, 2010,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空間的 正體性」『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I)』,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 정대영, 2009, 「중국 고대 옹관묘의 현황과 분석」『한국의 고대 옹관』, 학연문화사.
- 정인성, 2010, 「동북아시아에서 타날문 단경호의 확산」『중도식무문토기의 전개와 성격』, 제7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요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趙鎮先, 2004, 『細形銅劍文化의 展開過程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趙鎮先, 2005,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의 發展과 性格」『韓國上古史學報』47, 韓國上古史學會.
- 趙鎮先, 2009, 「韓國式銅戈의 登場背景과 辛庄頭 30號墓」『湖南考古學報』32, 湖南考古學會.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2, 외국문중합출판사.
- 中村大介, 2009, 「粘土帶土器文化와 原三國文化의 土器副葬 變化 및 國際關係」『湖西考古學』21, 호서고고학회.

- 郭大順, 2006, 「異形戈尋踪」『遼寧省博物館館刊』1, 遼海出版社。
- 郭治中, 2000, 「水泉墓地及相關問題之探索」『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考古學報』82-4。
-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瀋陽考古發現六十年』出土文物卷, 遼海出版社。
-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6, 『遼河文明展』文物集萃。
- 林 澐,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考古學報』80-2。
- 王成生, 2003, 「遼寧出土銅戈及相關問題的研究」『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 井中偉, 2008, 「戰國時期燕戈的類型學考察」『北方文物』2008-2。
- 肖景全·周向永, 2007, 「遼吉兩省相鄰地區早期鐵器時代文化的發現與研究」『遼寧省博物館館刊』2, 遼海出版社。
- 岡内三眞, 2004, 「東北式銅劍の成立と朝鮮半島への傳播」『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 岡村秀典, 2007, 「中國鏡からみた原三國時代の暦年代」『第19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交流會 予稿集』, 東アジア考古學會。
- 橋口達也, 1992, 「彌生時代の戦い-武器の折損研ぎ直し」『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17, 九州歴史資料館。
- 宮里 修, 2006, 「朝鮮式細形銅劍の成立過程再考 -東北アジア琵琶形銅劍の展開のなかで-」『第18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交流會 予稿集』, 東アジア考古學會。
- 宮本一夫, 1990, 「戰國鏡の編年(上·下)」『古代文化』42-46, 1990。
- 宮本一夫, 2002, 「東北アジアにおける觸角式銅劍の變遷」『清溪史學』16-17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宮井善朗, 1998, 「初期銅劍の研磨について」『環濠聚落と農耕社會の形成』,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發表資料集。
- 近藤喬一, 2000, 「東アジアの銅劍文化と向真具の銅劍」『山口縣史 資料編』考古1, 山口縣。
- 石川岳彦, 2001, 「戰國期における燕の墓葬について」『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16, 東京大學校文學部 考古學研究室。
- 石川岳彦, 2008, 「春秋·戰國時代の燕の青銅器 -紀元前5-6世紀を中心に」『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
- 小林青樹, 2008, 「東北アジアにおける銅戈の起源と年代 - 遼西式銅戈の成立と燕·朝鮮への影響」『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
- 小林青樹·石川岳彦·宮本一夫·春成秀爾, 2007, 「遼西式銅戈と朝鮮式銅戈の起源」『中國考古學』7, 日本中國考古學會。
- 村上恭通, 2000, 「燕和周邊の銅劍文化」『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부록]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 일람 및 요령식세형동검 도면 집성

[별표 1] 하북-산동지역 및 요서지역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과 공반유물

순번	출토유적	유구	주요 공반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1	산동 일조	수집 (齊墓?)	?	?	?	
2	하북 망도 M4460	燕墓	?	?	?	재가공?
3	하북 신성 고비점 M7110	燕墓	?	?	?	
	하북 신성 고비점 M7109	燕墓	?	?	?	재가공
4	하북 탁현 M659	燕墓	?	?	?	
5	건창 고산자 우도구 90M1	토광묘	T형청동검병 중원계동검, 중원계동과, 요령식동과, 삼익유공동촉2, 삼익장경동촉	/동부,동착,동도, 동시	녹송석구슬22/개두, 도두5,단경호/숫돌, 철광석제관상이진	출토유물 총40여점
6	객좌 황가점 토성자	토광묘	T형청동검병 유공삼익동촉5 중원계동과	동차촉두/ 동탁2.	곡봉형대구/회도장 경호,유개장경호 등	세형동검?
7	객좌 과목수영자	토광묘	T형동목검병, 석계검과두식, 중원계동과	동탁2. 곡봉형대구2	동환,동식/과수부 관,견쌍이호	
8	객좌 복산근 (원림치)	석곽묘			곡봉형대구?/점토대 토기2,수환쌍이호2, 도정,도분	
9	건평	채집	?	?	?	
10	조양 원대자	분묘	?	?	?	분묘유출 채집품
11	부신 합달호초	채집	?	?	?	상단결실
	傳 조양 부근	수집	T형청동검병편 석계검과두식	?	?	세형동검×
	건창 동대장자	적석 목관(곽)묘	비파형동검3, T형청동검병1, T형금장동목검병 2 석계검과두식3, 중원계동과.동모, 요령식동과↑ 등	동호,동돈,동두 등 예기/동함,동차촉 두 등 차마구	점토대토기(?),과수 부관,단경호,광구호, 도두,수환이채회도 호 등	세형동검×
	객좌 양가영자	채집	요령식동과 (호자과)	?	?	세형동검×
	호로도 산금구	분묘?	요령식동과 (쌍호과)	?	?	세형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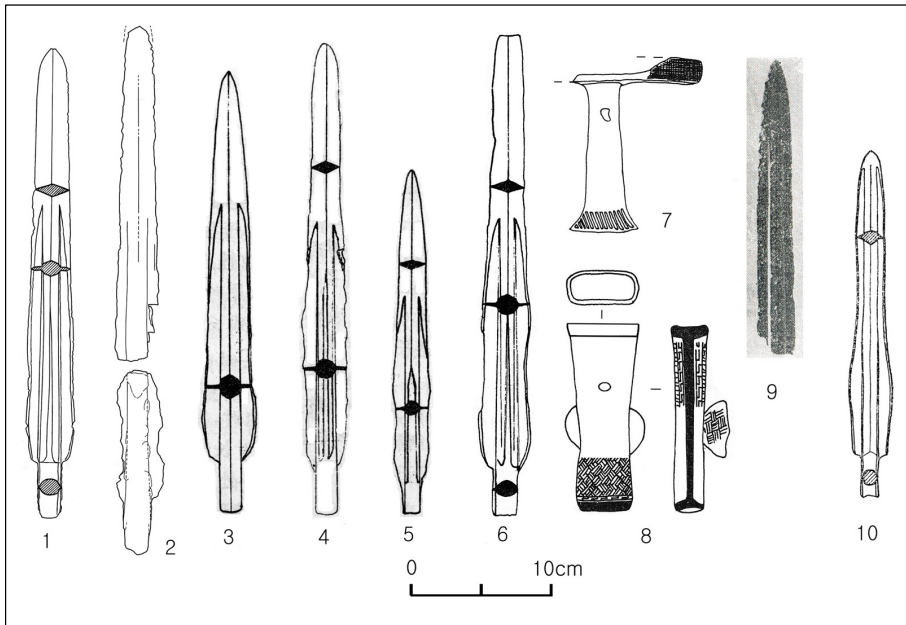


[도 1] 산동-하북지역 및 요서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1. 산동 일조, 2. 하북 망도 M4460, 3. 하북 탁현 M659. 4. 하북 신성 고비점 M7110, 5. 하북 신성 고비점 M7109, 6. 건평, 7. 객좌 과목수영자, 8. 건창 고산자 우도구, 9. 조양 원대자, 10. 부신 함달호초)

[별표 2] 요동남단지역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과 공반유물

순번	출토유적	유구	주요 공반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12	여순 윤가촌 63M12	적석 목관묘			/이 중구연심발형토기, 호형토기2, 두형토기3/환상식기	전국연식 토기영향
	여순 윤가촌 28M1	석곽묘 (적석 목관묘)			이 중구연심발형토기, 호형토기, 파수부호, 두형토기3, 완	세형동검×
13	여순 윤가촌 관둔자河	분묘?	세형동검편	?	?	총2편
14	여순 윤가촌 河 북안	분묘?	盤首柄劍	?	?	세형동검 通磨
15	금주 대령저촌	석곽묘?	?	?	?	
16	보란점 쾌마창촌	매납	세형동검			세형동검 총8점
17	보란점 후원대	석곽묘	‘啓封’銘戈 ‘○王’銘鉞	동화?/주조철부	석제관옥105, 장식구슬55/타날문단경호3	세형동검 일부결실
18	장해 상마석 M2	토광묘				제가공품
	장해 상마석 M4	토광묘			호형토기	세형동검×
19	장해 서가구	석곽묘 (적석 목관묘)	T형청동검병 청동칼집장식 도씨검5	/장방형동부, 동착		火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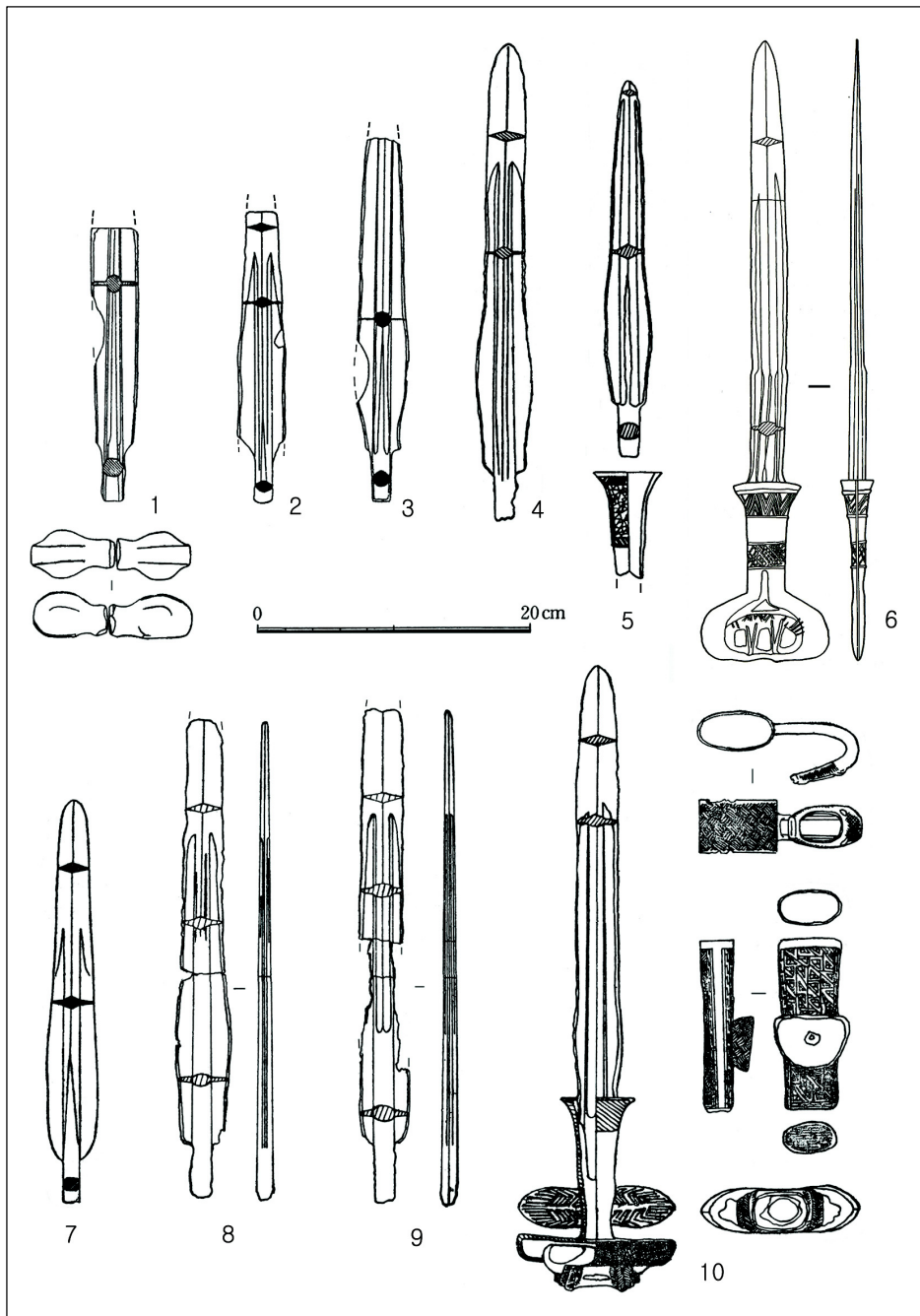


[도 2] 요동남단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1. 여순 윤가촌 63M12, 2. 여순 윤가촌 관둔자河, 3. 여순 윤가촌河 北岸, 4. 보란점 쾌마창촌, 5. 금주 대령저촌, 6-8. 장해 서가구, 9. 보란점 후원대, 10. 장해 상마석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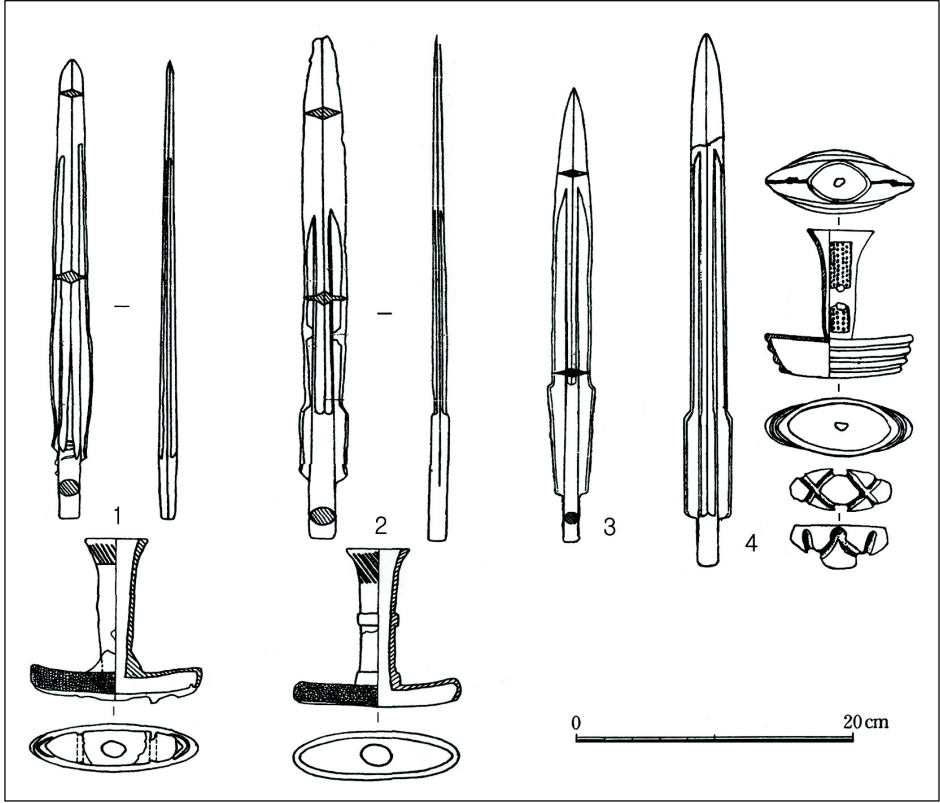
[별표 3] 요동북부지역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과 공반유물

분포 번호	출토유적	유구	주요 공반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20	심양 정가와자M1	토광묘			회흑도장경호편	
	심양 정가와자M2	토광묘	석제검과두식		회흑도장경호 /토제방추차	세형동검 제가공품
21	요양 양갑산 M1	토광묘			/호구연부편	제가공품
	요양 양갑산 M2	토광묘			/파수부점토대심발4, 토기편 다수	동검망실
	요양 양갑산 M3	토광묘			?	상단결실
	요양 양갑산 M5	토광묘			파수부점토대심발 회흑도장경호	세형동검×
	요양 양갑산 M6	토광묘			파수부점토대심발2	세형동검×
	요양 양갑산 M7	토광묘			파수부점토대심발 회흑도장경호	세형동검×
22	본계 사와	석관묘	?	?	무문토기편	
23	본계 남분 화차참 M1	토광묘	T형청동검병	?	?	
	본계 남분 화차참 M2	토광묘		/구조철부5	/명도전46	세형동검×
24	본계 박보촌	석관묘 (석곽묘)		반리문경/ 동환/ 점토대심발,도호 등		검병합주식
25	본계 양가촌 M2	석관묘				
26	본계 유가초촌	(대석개) 석관묘	T형청동검병, 석제검과두식, 청동칼집부속, 세형동검2, 엽맥문동모	다뉴수조문경	동물형장식품2,동환/ 토기6점(망실),협사 갈도편,니질회갈도 편(주변수습)	세형동검 총3점
27	본계 상보촌 M1	석관묘 (석곽묘)	T형청동검병2	/철착	동포,석제관옥2/점토 대심발,타날문 단경 호	세형동검 총2점
	본계 상보 M2	석관묘 (석곽묘)			점토대심발2,타날문 단경호	세형동검×
	본계 상보촌 M3	석관묘 (석곽묘)			점토대심발,타날문 단경호	세형동검×
	본계 상보촌 M4	석관묘 (석곽묘)			타날문단경호	세형동검×
28	신빈 마가자	석관묘	?			
29	신빈 대사평 반랍령	매납				세형동검 총6점
30	신빈 복사평	매납	제지계동모			
31	창도 직가촌	매납	T형청동검병 석제검과두식 삼익유공동축11 삼릉유경골축 桃氏劍,扁莖劍	/구조철부5		
	본계 망성강자	석관묘	세신형동모			세형동검×
	傳 심양	?		다뉴소문경		세형동검×



[도 3] 요동북부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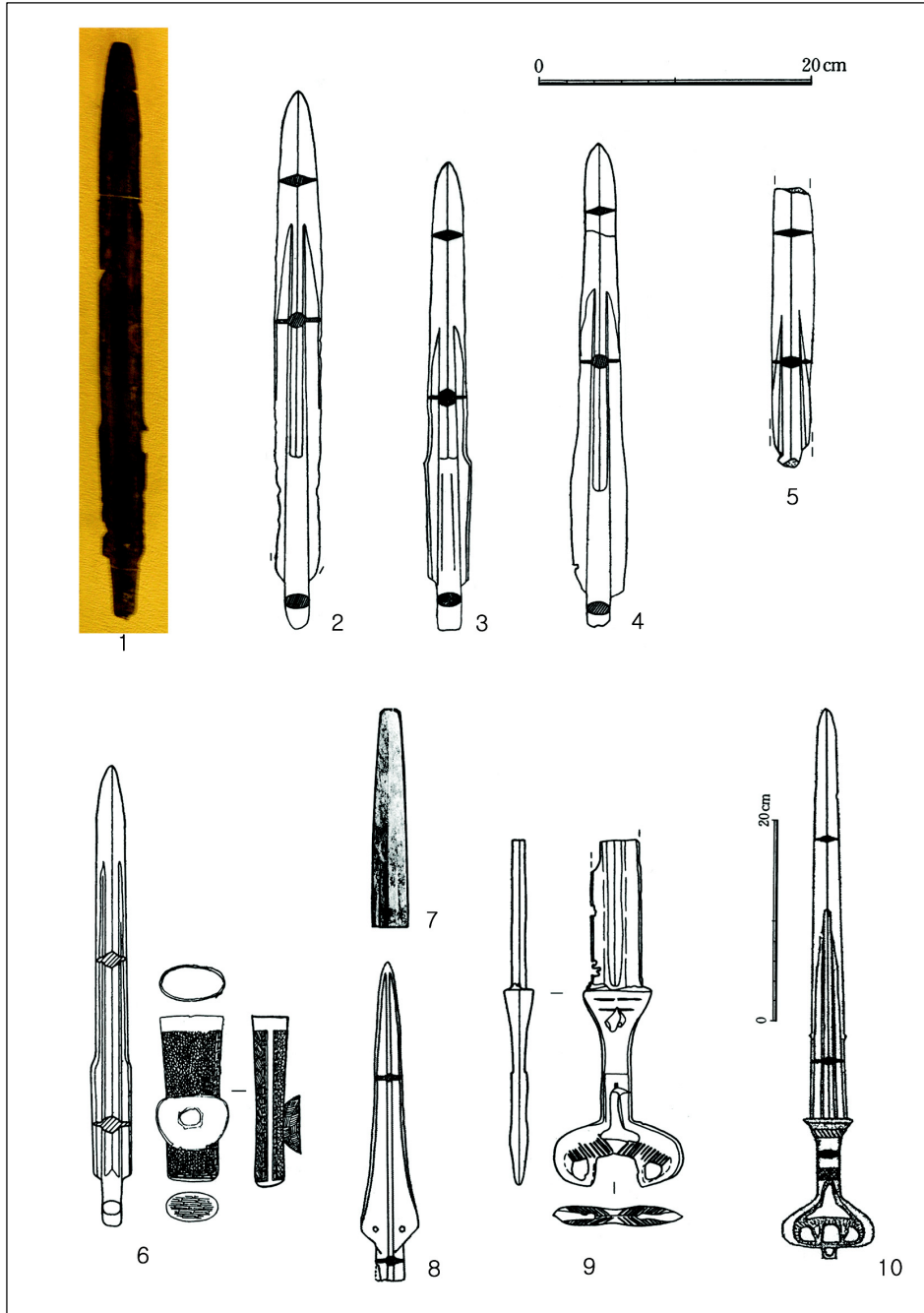
(1. 심양 정가와자 M2, 2. 요양 양갑산 M1, 3. 요양 양갑산 M3, 4. 본계 사와, 5. 본계 남분 화차
 참 M1, 6. 본계 박보촌, 7. 본계 양가촌 M2, 8-10. 본계 유가초촌①②③)



[도 4] 요동북부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2
 (1-2. 본계 상보존 M1①②, 3. 신빈 마가자, 4. 창도 적가촌)

[별표 4] 요동동부지역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과 공반유물

분포 번호	출토유적	유구	주요 공반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32	수암 초자하	매납?	?	?	?	
33	봉성 소진가	적석 (석관)묘	?	?	?	
34	동구 대방신	매납?	?	?	?	
35	관전 조가보자	적석 석관묘	엽맥문동모	다뉴엽맥문경 다뉴소문경2		
36	관전 포자연	석관묘?	요령식동과	?	?	
37	환인 대전자	대석개 석관묘	삼릉유공동축 삼익유공동축	/철도자	동환, 석제 관옥, 석제 곡옥/명도전200 등	검신상부 火葬
38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	청동검조, 엽맥문동모, 유엽형동모2	다뉴엽맥문경/ 선형동부4, 장방형동부		착두형철촉 공반 이견
39	통화 만발발자	석관묘, 대석개묘	이형동검 유엽형동모	다뉴성문경?/ 선형동부	동환/?	검신상부 多次,火葬
		문화층 (3기층)	세형동검용범 유공동축용범 등	/선형동부용범 등	발형토기/복골 등	세형동검×
40	장백 비기령	?	?	?	?	촉각식
a	통화 금창진	?	(길림식)	?	?	촉각식
	관전 사평가	적석석관 묘	엽맥문동모			세형동검×
	환인 오녀산성	3기층	방제석검 등	?	?	동검파편
	환인 사도하자	(적석) 석관묘?	유엽형동모 (엽맥문?)			세형동검?
	집안 신홍촌	(적석) 석관묘?	유엽형동모 (엽맥문)			세형동검×
	집안 양익향	?	유엽형동모 (엽맥문?)			세형동검×
	장백 간구자	적석묘?	엽맥문동모?	?	?	세형동검×
	통화 소도령	매납? 생산?	유엽형동모용범	다뉴성문경-선형 동부용범/선형동 부용범8 등		일괄폐기 세형동검×
	통화 산구리 적백송고성	?	엽맥문동모			세형동검×
	통화 쾌대무자	?	유엽형동모 (엽맥문?)			세형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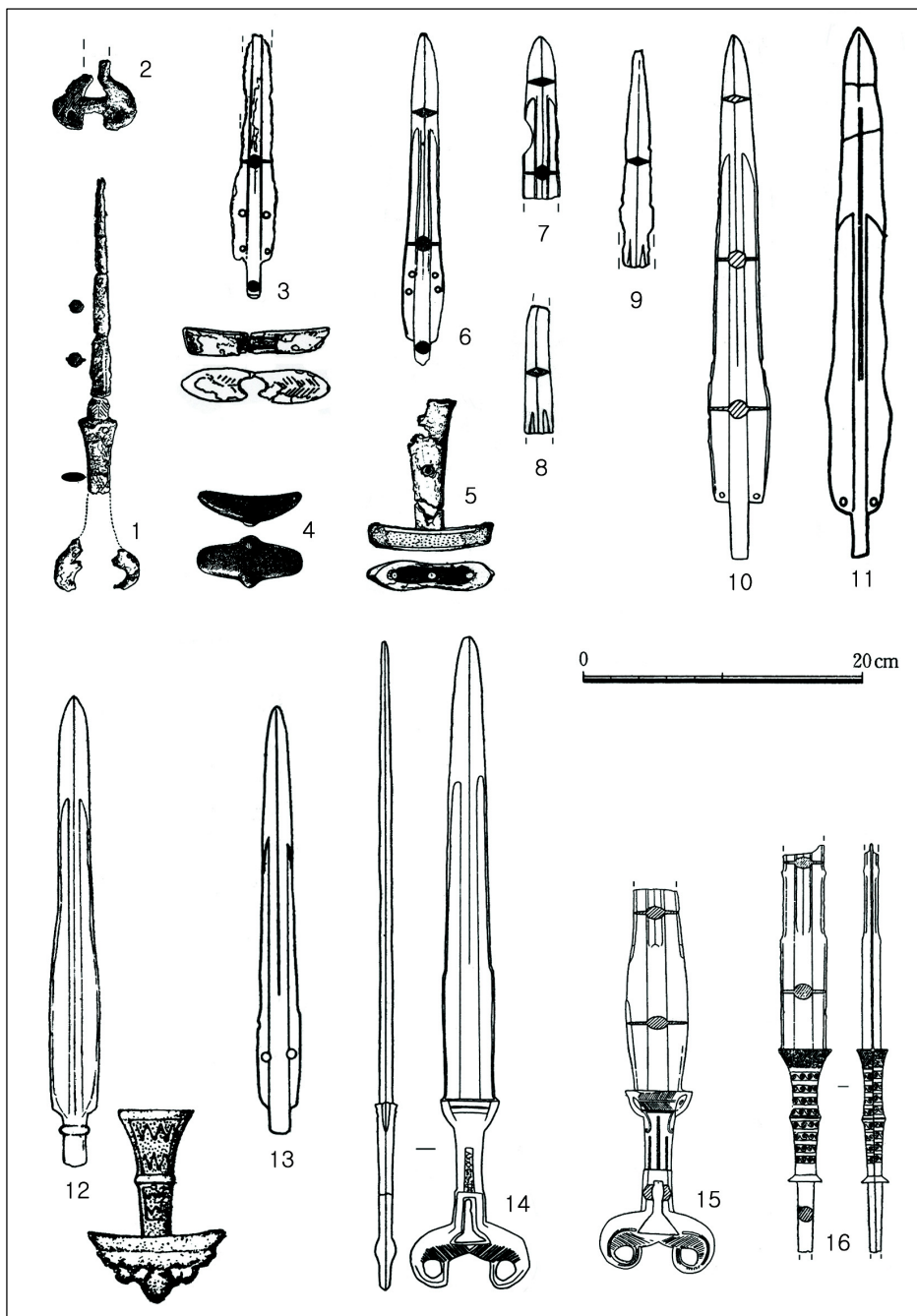


[도 5] 요동동부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1. 수암 초자하, 2. 봉성 소진자, 3. 동구 대방신, 4. 관전 조가보자, 5. 환인 대전자, 6. 집안 오도령 구문, 7-8. 통화 만발발자, 9. 장백 비기령, 10. 통화 금창진) (단, 8은 이형, 10은 길림식)

[별표 5] 길림중서부지역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과 공반유물

분포 번호	출토유적	출토유구	주요 공반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41	화전 서황산둔M1	대석개 토광묘	T형청동검병편 축각식동검2 양익유경동축	/동도자3,철도자	동포2,마노관옥2 /소발4	검엽천공 多次,火葬
	화전 서황산둔M2	대석개 토광묘	T형청동검병2,	다뉴성문경2 /주조철부	십자형동기/소발3	多次,火葬
	화전 서황산둔M3	대석개 토광묘	축각식검병편	다뉴성문경/철검, 철도자,주조철부	반지2,팔찌3,청동고 리,마노관옥7,유리관 옥12/소발3,뉴이소 호2	多次,火葬
	화전 서황산둔M6	대석개 토광묘	세형동검편2	/주조철부3,철도 자,철검	소발/석추2	검엽천공
42	동풍 대가산	문화층 (상층)	세형동검용범	다뉴성문경 용범/주조철부?	?	세형동검×
43	동요 석역공사 (채담둔)	목곽묘	축각식철검 환수철도,철모 삼익유공동축	초엽문경,성운문 경,반혜문경,정백 경,일광경	소형동령,동물형장 식품,동포/도완/반량 전,오수전	검신상부
44	공주령 대청산	토광묘			반환형동식/ 홍갈도단경호4	검엽천공
45	공주령 수천둔	토광묘			?	검엽천공
46	쌍요 길상둔	토광묘?	T형청동검병 석제검파두식			
47	길림 장사산	토광묘?	?	?	?	검엽천공
		토광묘	세신형동모		마노관옥	세형동검×
48	영길 왕둔	토광묘	?	?	?	축각식
	傳 중국	?	?	?	?	축각식
b	서란 사가촌	분묘?	장간식세형동검 (이형)	?	?	요령식×
	반석 이수상둔	대석개 석곽묘	석제검파두식	/수각병동도자	/무문소발	세형동검×
	동풍 보산촌 십대망	문화층 (상층)	?	/선형동부-동착용 범,주조철부 등	?	
	요원 고고촌 M1	대석개묘	석제검파두식		식옥/무문토기대호	세형동검×
	영길 양둔	문화층	?	?	?	동검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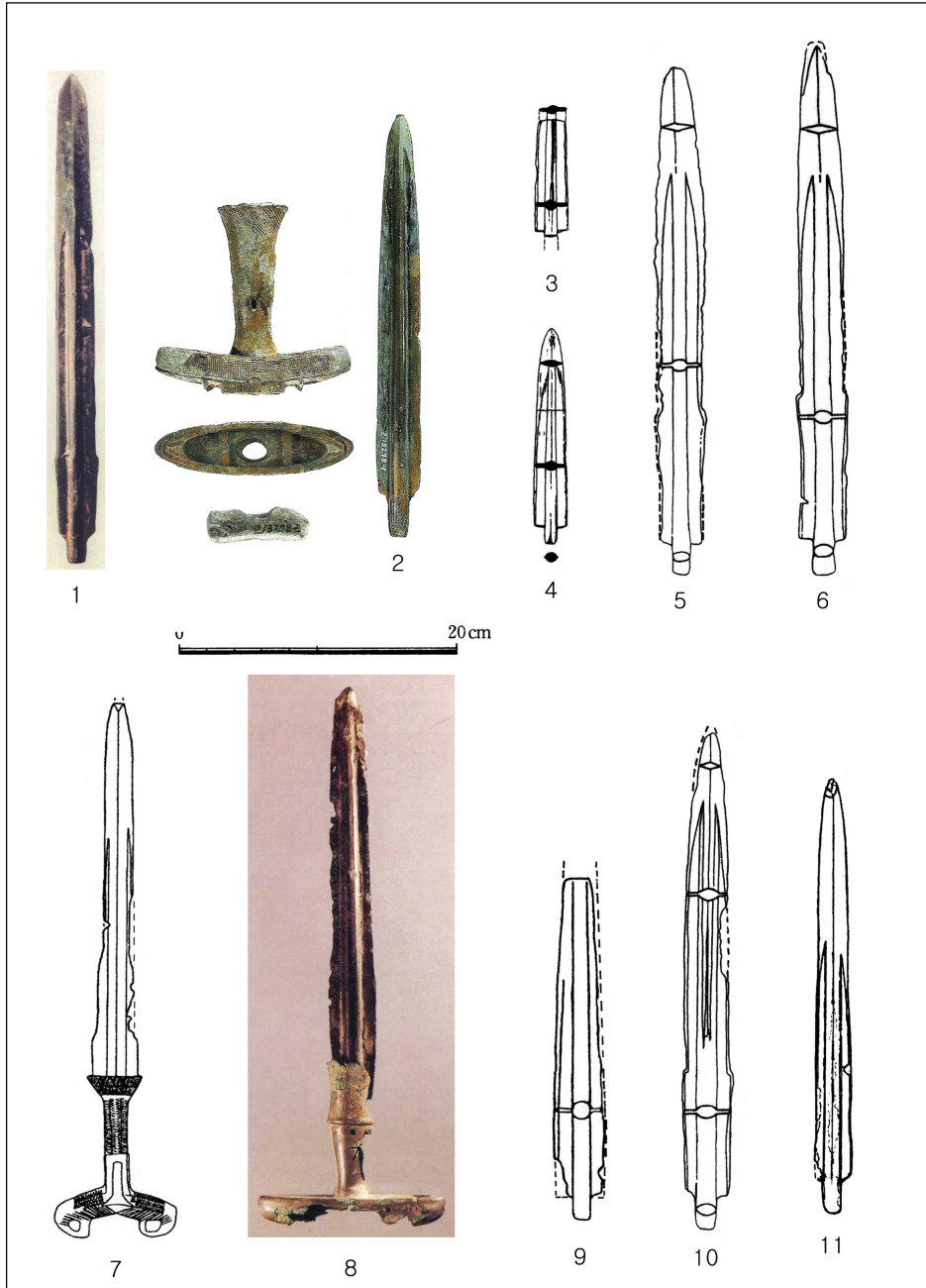


[도 6] 길림중서부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1/3. 화전 서황산둔 M1, 2. 화전 서황산둔 M3, 4/5. 화전 서황산둔 M4/M2, 6-8. 화전 서황산둔 M6, 9. 동요 석역공사(채담둔), 10. 공주령 대청산, 11. 공주령 수천둔, 12. 쌍요 길상둔, 13. 길림 장사산, 14. 영길 오랍가 왕둔, 15. 傳 중국, 16. 서란 사가촌) (단, 16은 非요령식)

[별표 6] 서북한지역 요령식세형동검 출토유적과 공반유물

분포 번호	출토유적	유구	주요 공반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49	평남 문덕	분묘?	?	?	?	조족문
50	평원 신송리	토광묘	T형청동검병 석제검과두식 桃氏劍6	청동용기편 /동사	심발형토기편, 두형토기2 등	
51	평양 석암리	목곽묘?	세형동검편	산자문경 소지연호문경	?	총2점
52	평양 원암리	토광묘?	?	?	?	
53	평양 동정리	토광묘?	?	?	?	
54	평양 토성동 M486	목곽묘	한국식세형동검6, 세형동모2,유문동 과,노기,철검,철 도,철극,삼각형석 촉,유공동촉17,철 촉2	세지수문경(반리 문경),소문경/철 부3,철착2 등	청동쌍령3,다각수정 구슬24,벽옥제관옥/ 청동국자,‘上’자명순 금괴,청동용기3 등	촉각식
55	재령 고산리	토광묘	T형청동검병 桃氏劍2	장방형동부		
56	신천 청산리	토광묘?	?	?	?	상단결실
57	연안 오현리	토광묘	한국식세형동검 세형동모			
58	서울 영등포	토광묘?		/동착2		
	평양 신성동	석곽묘	비파형동검 석제검과두식 삼각형석촉2	다뉴뇌문경	/회흑도장경호	세형동검 ×



[도 7] 서북한지역 출토 요령식세형동검

(1. 평남 문덕, 2. 평원 신송리, 3-4. 평양 석암리, 5. 평양 원암리, 6. 평양 동정리, 7. 평양 토성동 M486, 8. 재령 고산리, 9. 신천 청산리, 10. 연안 오현리, 11. 서울 영등포)

